

mécé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 메세나 | 2020 WINTER VOL. 112



SPECIAL ISSUE

2020 한국메세나대회

한 장의 마스크가

우리의 일상을 건강하게 지켜주듯
당신의 소중한 후원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힘든 한 해에도 따뜻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MÉCENAT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만남



2020 메세나 대상 수상기업

대상 한국전력공사	문화공헌상 신한카드	메세나인상 NOROO 한영재 회장	창의상 THE HYUNDAI	Arts & Business상 에스케이
▶시상식 2020년 12월 1일(화) 15:00	▶장소 글래드호텔 여의도 볼룸홀	▶주최 한국메세나협회	▶주최 매일경제 MBN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현대약품	▶후원 samyang	▶후원 DongSung	▶후원 SeAH 세아제강	▶후원 LG EAGON
▶후원 현대약품	▶후원 samyang	▶후원 DongSung	▶후원 SeAH 세아제강	▶후원 LG EAGON
▶후원 현대약품	▶후원 samyang	▶후원 DongSung	▶후원 SeAH 세아제강	▶후원 LG EAGON

본 광고는 엠허브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었습니다

Contents

2020 WINTER VOL. 112

메세나 통권 112호 발행일 2020년 12월 16일 발행인 김영호
발행처 한국메세나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7(여의도동 13-31) 기계산업진흥회 본관 6층 Tel. 02-761-3101~2
기획 한국메세나협회 경영기획팀 제작 디자인소호 가격 5,000원

홈페이지 www.mecenat.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ecenat.korea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oreamecenat

SPECIAL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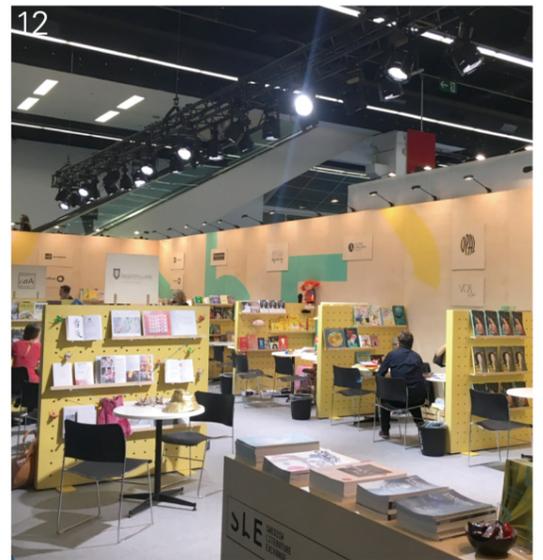
- 04 2020 한국메세나대회 현장 스케치
- 08 제21회 메세나대상 영광의 주역
- 12 메세나 이슈 / 코로나19 해의 문화예술계 지원 현황

메세나 포커스

- 18 정책 / 예술로 뉴딜할 수 있을까?
- 20 예술인문 / 1가구 1브로드웨이
- 22 현장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치유제
- 26 갤러리 / 롯데뮤지엄 <장 미셸 바스키아 - 거리, 영웅, 예술>展
스페이스K 서울 <임그러진 초상>展

함께하는 메세나

- 34 메세나 리포트 / '코로나 시대의 메세나: 기업의 예술지원 전략 모색'
온라인 세미나 개최
- 36 기업-예술 파트너십 / 동서식품 & 산홍오케스트라 외
- 40 메세나가 가까이 보기 / 중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외
- 47 협회소식 / 회원사 뉴스
- 50 회원사 소개



우제길 작 <4월의 빛> 캔버스에 아크릴채색, 170x170cm, 2020

우제길의 그림에는 줄곧 어둠과 빛의 굴절, 찢어진 장판의 오버랩이나 심지어 표구점의 목판 패널까지 등장한다. 그러나 그림의 핵심적인 주인공은 빛이다. 다른 오브제들은 그 빛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보조자다. 구상이면서 비구상적 효과를 주는 우제길 작품의 묘미를 그대로 드러낸 작품이 <4월의 빛>이다. 어둠과 빛의 조화와 통일 속에서 오묘한 예술의 신비를 추적한다.

계간 <메세나>는 한국의 미술작가를 널리 알리고 현대미술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미술 작가의 작품을 표지에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정정합니다 : <mecenat> 111호 10쪽에 수록된 칼럼 필자 정보를 '박신외(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로 바로 잡습니다.

다시 출발선에 선 예술의 저력

2020 한국메세나대회 현장 스케치

혼란과 변화의 시대를 겪으며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불안과 불확실성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졌다. 침체된 사회·경제 여건 속에서 문화예술은 시련의 틈을 비집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줄기 빛이 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넘어 예술이 연결하는 감성적 소통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멀어진 우리의 공간을 따뜻한 온기로 채웠다. 문화예술인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민을 위로하는 동반자로 나선 기업들의 행보는 그 어느 해보다 위대했다.





철저한 방역 속

모범적 거리두기 호평

12월 1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진행된 '2020 한국메세나대회'는 코로나19 방역 단계 상향 이전에 치러졌지만 엄격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장내 진입 전부터 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확인, QR 인증, 손 소독 등을 전 인원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지하1층 블루홀에 마련된 행사장에는 100명 이하로 한정된 기업인들이 총 18개 테이블에 거리를 두고 착석했다. 각 테이블마다 손 소독제를 비치함은 물론 투명 가림막 설치와 띄어 앉기 또는 거리두기를 준수해 좌석을 배치했다.

행사 출입 관계자도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행사 시간 역시 1시간 30분 내로 축소를 역대 한국메세나대회 중 가장 간소화된 프로그램으로 치러졌다. 행사 자체의 규모보다 한국메세나대회가 갖는 고유의 가치와 본질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결과다. 신중하고도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 만큼 그 어느 해보다 진정 어린 축하와 격려, 그리고 응원이 깃든 시간이었다.

차분함 속

진중한 행사 현장

본 행사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의 연주로 막이 올랐다. 2015년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에서 20세 나이로 한국인 최초 1위를 거머쥔 실력파다. 다채로운 색채로 무대를 사로잡는 그녀만의 힘 있는 에너지가 '2020 한국메세나대회' 무대를 풍성하게 채웠다. 첫 곡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Zigeunerweisen'의 섬세하고도 묵직한 현의 울림이 암전된 장내를 깨웠다. 이어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Schone Rosmarin'이 연주됐다. 대중에게 익숙

한 두 명곡은 모두의 오늘을 담담히 응원하는 듯했다. 모처럼의 라이브 무대를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참석자들의 감증을 채웠다.

축하연주가 끝난 뒤 한국메세나협회장을 역임 중인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의 인사말이 전해졌다. 김 회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술가의 존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혼돈의 시기에도 끊임없이 예술지원을 지속해온 기업들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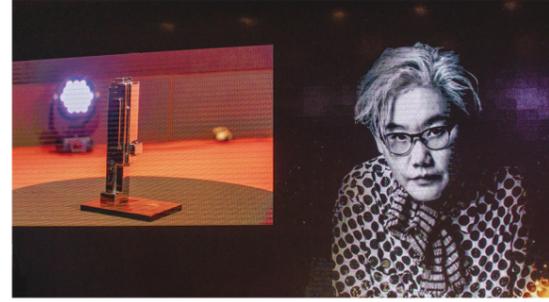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은 앞서 진행된 오프닝 연주에 대해 "오랜만의 바이올린 연주로 귀가 즐거웠다"고 감상을 전했다. 또한 축사를 통해 영화 <기생충>과 K-POP 그룹 BTS를 언급하며 한국인의 예술적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공유했다. "대중예술뿐 아니라 클래식, 발레 등 순수예술에서도 세계적 주목을 받는 것은 나무에 물을 주듯 예술가들을 아낌없이 후원하고 지원한 기업들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날 자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을 대신해 김영수 예술정책관이 장관의 축사를 전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문화예술을 지원해준 기업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혜택을 발굴해나갈 것"이라며 김영수 정책관을 통해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예술 후원 고귀한 정신 깃든

스물한 번째 메세나대상 시상식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끝나고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과 '제21회 메세나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은 15년째를 맞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대기업 결연 지원 36건, 중소·



중견기업 결연 지원 187건을 기록하며 올 한 해 79억 원의 후원액을 달성했다. 이로써 2006년 이후 올해까지 후원 누계 실적은 총 1,900건, 누적 지원 금액 약 830억 원에 달한다. 올해의 베스트 커플상 대기업 부문은 신세계와 한빛예술단에게 돌아갔다. 2012년부터 후원 협약을 맺은 뒤 문화공헌 파트너로 서로 협력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부문은 디와이엘씨와 극단 아리랑이 수상했다. 2012년부터 결연을 맺은 이래 연극 교육 프로그램 및 강의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메세나협회와 매일경제신문이 함께 선정하는 메세나 대상은 올해로 스물한 번째를 맞았다.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기업·기업인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기념하고,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올해에도 공헌도·지속성·독창성·효율성 등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정해 메세나대상 후보 기업들 중 최종 수상자를 가렸다.

금년 메세나대상 트로피는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이불 작가의 작품이다. 메세나대상 트로피는 매년 최만린, 박석원, 신상호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으로 만들어진다. 2018년부터는 이불 작가의 작품이 수여되고 있다. 20세기 모더니스트들의 건축적 디자인에 영감을 받아 진보적 미래를 향해 완벽을 추구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시도를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전 세계적으로 문화예술이 침체된 가운데 국내 예술 산업에 버팀목이 되어 준 기업들에 이불 작가의 트로피가 전달됐다. 2020년 영예의 대상은 한국전력에 돌아갔다.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주인환 한국전력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전기가 세상을 밝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처럼 문화예술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며 "다양한 메세나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계 성장에 기여하고 국민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일하게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시상하는 올해의 메세나인상은 국립오페라단, 세종솔로이스츠, 한국페스티벌앙상블, KBS교향악단 등 다수 예술단체를 후원해온 한영재 노루홀딩스 회장이 수상했다. 한 회장은 "그동안 문화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지원 활동에 집중해왔다"며 "일회성 후원이나 마케팅 수단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 문화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문화공헌상은 신한카드가 수상했다. 신한카드FAN스퀘어,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부산) 등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예술가들과 함께 을지로 유희공간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한카드 문동권 경영기획그룹장은 "신한카드 고객과 문화예술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문화예술시장에 새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한편, 혁신적 아이디어로 메세나 영역을 확대해 나간 기업에 수여하는 창의상은 현대어린이책미술관과 갤러리H를 운영하며 작가들을 지원해온 현대백화점에 돌아갔다. 현대백화점은 아동 복지·교육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미술관 문턱을 낮추는 데 앞장서고 있다. 끝으로 Arts & Business상은 에몬스가구와 강화자베세토오페라단이 수상했다. 가구기업 최초의 수상이다. 에몬스가구는 2007년부터 강화자베세토오페라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14년간 해마다 오페라단을 후원하며 제작 지원금을 후원하는 등 문화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진심어린 축하가 오고 간 메세나대상 시상식을 끝으로 2020 한국메세나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만찬 리셉션과 대화를 통한 기업인들의 친목 도모의 시간은 방역 차원에서 아쉽게 갖지 못했지만 마스크 너머 서로에게 건네는 응원의 눈빛으로 위안을 삼기에 충분했다. 



SPECIAL ISSUE

글·사진: 메세나 편집부



제21회 메세나대상 영광의 주역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과 지원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힘을 발휘한 올해, 예술을 통한 위기 극복에 선봉장으로 나선 기업들이 모였다.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에 동참한 기업인들과 예술가들이 모인 뜻 깊은 자리에서 영광의 단상에 오른 주역들을 만났다. 진심 어린 축하가 전해지는 가운데 서로를 향한 응원과 격려의 덕담이 오고 갔다.

대상 한국전력

16년간 총 78억 원 투자
2005년부터 민간 교향악단과
희망·사랑 나눔 콘서트 지속

우리나라 대표 에너지 기업인 한국전력은 1994년부터 'KBS-한전 음악콩쿠르'를 개최해 클래식 인재 발굴을 통한 음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성악, 피아노, 현악, 관악 부문의 만35세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수상자에게 상금과 마스터클래스(해외연수), KBS교향악단과의 협연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원 기회가 적은 민간 교



향악단들과 함께 '희망·사랑 나눔 콘서트'를 15년째 진행해 문화 소외지역을 순회하며 지역민들에게 클래식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1년부터 '한전아트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며 타 공연장에 비해 합리적인 대관료로 공연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준다. 1994년 개관한 갤러리에서는 기성·신진 작가들의 기획 전시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동아 무용콩쿠르 협찬, 한전합창단 운영, 한일병원 송년음악회 개최 등 본사와 전국 사업소에서 다양한 메세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순수 문화예술 발전과 향유를 위해 앞장서는 한국전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문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문화예술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문화공헌상 신한카드

유튜브 라이브 공연
중점사업 추진
다목적 문화플랫폼
시설 운영
지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메세나인상 노루홀딩스 한영재 회장

페인트 회사 특성 살린
도시재생·미술
프로젝트 지원
문화 소외지역 찾아
품격 높은 공연 관람
기회 제공

창의상 현대백화점

미술관 문턱 낮춘
친근한 공간 마련
현대어린이책미술관 등
아동 미술 교육·전시
기회 제공

Arts & Business상

오페라 제작지원금 후원
고객 및 지역민 초청
백스테이지 투어 제공

에몬스가구 & 강화자베세토 오페라단



신한카드는 서울 합정동의 '신한카드 FAN스퀘어', 부산 해운대구의 뮤지컬 전용극장인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등 다목적 문화플랫폼 시설들을 운영하며 인프라 후원을 활용한 예술 활성화와 지역민 문화향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아트 콜렉션' 사업을 통해 LG아트센터와 협업하며 예술 문화공간 후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능 있는 인디 뮤지션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루키 프로젝트', '키스 해링 탄생 60주년 특별전'과 '빈센트 반 고흐전' 등 미술전을 후원한 바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해 신한카드의 인프라와 디지털 역량을 활용, 연극·콘서트 등을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하는 '디지털 스테이지'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 공공 디자인과 아트 마케팅을 접목시킨 '히어로(Here:路) 프로젝트', 어린이 예술인재를 지원하는 '꼬마피카소 그림대회' 등 다각적인 예술지원 사업을 통해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수년간 조용하고 꾸준하게 예술 후원을 해온 숨은 메세나인 한영재 회장은 국립오페라단, 무악오페라단, 한국페스티벌앙상블, 서울문화재단,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함신익과 심포니 송 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 등 수많은 예술단체를 조건 없이 후원해오고 있다. 특히 '함신익과 심포니 송 오케스트라(이하, 심포니 송)'의 'The Wing' 사업을 전폭 후원한 사례는 많은 음악가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문화 기반시설의 지역별 불균형을 없애고 싶다는 심포니 송에 고가의 이동무대인 5.5톤 트럭을 제공해 전국 순회공연을 후원했으며 정기공연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심포니 송은 한영재 회장의 후원에 힘입어 군부대, 교도소, 소년원, 문화소외지역 학교, 저소득층 등을 찾아가 품격 있는 클래식 공연을 선사했다. 이밖에도 한 회장은 기업 제품 특성을 살려 도시재생 사업 및 미술 프로젝트에 페인트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활발한 문화공헌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문화격차를 줄이고자 다양한 단체에 예술후원을 지속하는 한영재 회장의 진정성 있는 행보는 많은 기업인들에 모범이 되고 있다.



2015년 국내 최초의 책을 주제로 한 어린이 미술관인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을 개관해 다양한 책 전시, 테마교육, 열린 서재 등 활발한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은 기업이 어린이 미술관을 열어 1종 미술관 정부등록을 받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미술관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기획전시를 개최해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앤서니 브라운전', '덴마크에서 온 두 친구', '티라의 손' 등을 비롯해 국내 그림책 작가들과 해외 작가들의 그룹전을 열어 작가 간의 교류를 돕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갤러리H'를 운영해 신진 미술작가를 발굴하고 예술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을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대백화점의 이러한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은 어린이와 문학의 연결고리를 찾아 미술관을 지역 사회 아동을 위한 교육적 공헌 시설로 구축하며 타 유통기업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종합가구 브랜드 에몬스가구는 2007년 <오페라 아이이다> 공연 후원을 시작으로 강화자베세토오페라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14년간 후원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으로서 쉽지 않은 장기 후원 사례다. 에몬스가구는 고객과 임직원, 그리고 지역민을 초청해 오페라 공연 관람 및 백스테이지 투어 등 제반 행사를 함께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1998년 설립된 강화자베세토오페라단은 에몬스가구의 후원에 힘입어 성악가들의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공연을 무대에 올려 우리나라 오페라 발전에 기여했다. 에몬스가구와 강화자베세토오페라단은 중소기업이 장기적으로 예술후원을 유지하는 진정성 있는 상생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SPECIAL ISSUE

메세나 이슈

글·사진: 박선민(예술경영 컨설턴트)



해외 예술 지원 ————— 현장 읽기

코로나19 해외 문화예술계 지원 현황

지난 수개월간 우리의 삶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코로나19 전과 후로 나뉘었고, 문화 예술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예술을 지원하고 있을까? 일본, 스웨덴, 잉글랜드, 싱가포르의 코로나19 사태 속 문화예술계 지원 현황을 살펴본다.

“

우리의 일상생활은 코로나19 전과 후로 나뉘었고, 문화예술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일본메세나협회(KMK) 적극적인 격려와 보상으로 기업에 동기부여



일본메세나협회(Kigyō Meccnat Kyōgikai, KMK)는 기업의 예술 지원을 돕기 위한 민간공익법인으로 1990년에 설립되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창의적이고 활기차고 번영하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협회가 실행하고 있는 서비스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예술 조사 연구지원 ▲재난 지역의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GB Fund ▲홍보 및 출판 사업 ▲문화예술 정책 제안 사업 ▲문화 예술 지원 기업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본메세나협회의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메세나 어워드다.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의 관심을 높이 고자 1991년부터 ‘메세나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This is MECENAT’ 인증 활동 중에서 뛰어난 활동을 한 7건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며(메세나대상 1건, 우수상 5건, 문화청장 장관상 1건) 지금까지 약 200여 개의 기업에게 메세나 인증서와 상을 수여했다.

문화예술 지원의 지속성 중시

일본메세나협회는 회원사 및 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 19가 기업 메세나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설립된 문화예술 재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 GB FUND(Disaster Recovery Support Fund through Arts and Culture로 명칭 변경)를 운영 중이다. GB FUND는 설립 초기 ‘5년 동안 지속적 지원’이라는 조건으로 설립됐지만 자연 재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본의 특성상 전국 모든 재난 피해 지역의 문화예술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문화 예술계를 지원 중이다. 일본메세나협회가 실시한 ‘코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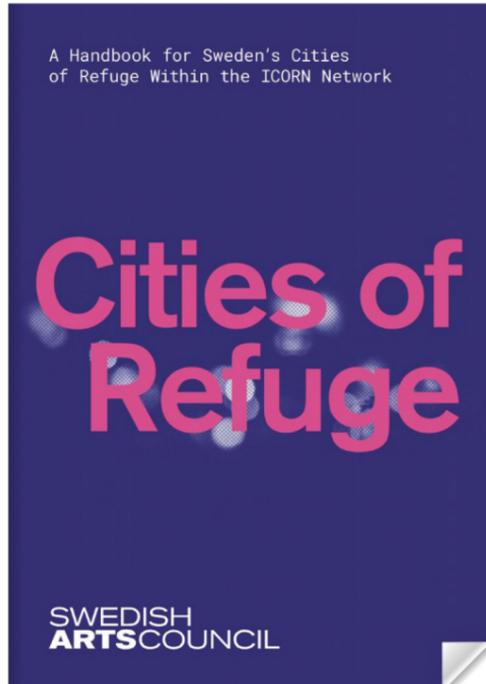
가 기업의 메세나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 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기업의 메세나 활동 70%에 영향을 미쳤다 ▲대다수 기업은 코로나19 이후 ‘시기와 방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에 따라 다시 지원을 시작’하기를 원한다 ▲대다수 기업들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업과 단체들은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메세나 활동을 계속하고자 한다 ▲기업들은 코로나19가 끝나면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또한 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 기업과 재단의 활동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도요타 자동차에서는 예술경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DNP Foundation for Cultural Promotion와 Shiseido Gallery of Shiseido Company와 같은 갤러리에서 제공하는 VR이나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일본메세나협회는 적극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업과 문화예술계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책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를 문화예술 재해 복구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GB Fund를 계속해서 운영한다. 기존의 지원체계와 별도로 운영하기보다 현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융통성 있게 반영하여 ‘문화예술 지원의 지속성’을 중시한다.

GB Fund 로고 ©일본메세나협회





스웨덴예술위원회 피난처 도시 프로그램 핸드북 ©www.e-magin.su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스웨덴 섹션 ©스웨덴예술위원회

지역에 기반 둔 예술가 지원

스웨덴예술위원회는 위기 상황에서 문화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 패키지로 나누어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첫 번째 패키지(2020년 3월 20일 발표)는 약 650억 원 규모로 예술가, 작가, 영화 등에 지원됐다. 두 번째 패키지(2020년 9월 9일 발표)는 2020년과 2021년 문화 예산에 약 4,400억 원을 추가 편성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지원하는 것으로 이중 약 2,000억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겪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문화예술의 재개를 돕기 위함이다.

두 가지 패키지에 포함된 지원 내용은 문화 예술 관련 기업들의 단기 근로 수당 지원, 조세 및 일자리에 대한 보완책 시행, 창조 및 문화산업을 위한 지역 신생 기업 긴급 보조금 지원이다. 여기에는 지방도시 및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예술가들 지원 방안과 문화 발전의 필요를 모니터링하는 스웨덴 지역 및 관련 단체의 긴밀한 협력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대규모의 지원을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것은 스웨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를 반증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에서 이뤄지는 다방면의 문화예술 발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긴급 예술 지원 패키지 제공으로 문화예술 손실 막고 활동 지속”

#스웨덴예술위원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표현의 자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일컬어지는 스웨덴은 창의성·상상력이 뛰어난 나라로 손꼽힌다.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스웨덴예술위원회의 ‘예술에 대한 신념’이다. 스웨덴예술위원회(Swedish Arts Council)는 1974년에 설립된 정부 기관으로 문학·독서 진흥·도서관·박물관·공연 예술·음악·공예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과 국제 교류 및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예술위원회는 ‘문화는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역동적이고 도전적이며 독립적인 힘’임을 강조한다. 누구나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보조금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번역을 포함해 스웨덴 문학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리는 활동에 전체 예산의 1/6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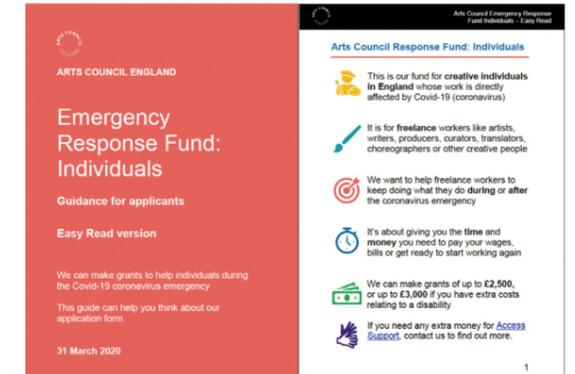
#잉글랜드예술위원회 개개인의 창의성 변창·수준 높은 문화 향유



잉글랜드예술위원회(England Arts Council)는 1946년 창설된 공공기관으로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 부서를 총괄한다. 국립복권기금이 설립되면서 1994년 스코틀랜드 예술위원회, 웨일즈예술위원회 그리고 잉글랜드예술위원회로 나뉘게 되었다. 이후 2002년 모든 지역 예술위원회가 잉글랜드예술위원회에 속하도록 재편되었다. 공연, 시각예술, 문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박물관, 도서관 및 자료 수집까지 지원분야를 확대했다. 2030년까지 영국을 개개인의 창의성이 변창하고 많은 국민이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하는 국가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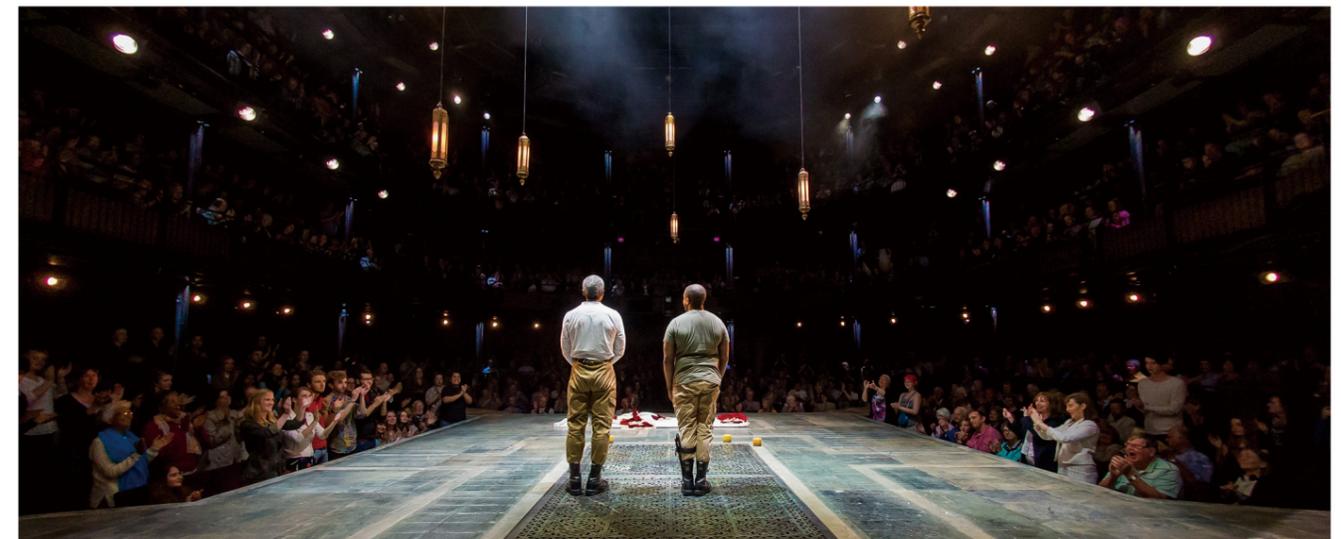
예술생태계 지속을 위해 대규모 자금 수혈

코로나19 사태 속 문화예술 생태계 지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원이 필요한 예술가와 단체를 대상으로 약 3천억 원 규모로 3차에 걸쳐 긴급 대응 패키지를 마련했다. 긴급 대응패키지의 기금 전액은 정부와 국립 복권 기금에서 출자되며 DCMS(Department of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s)



긴급대응기금(개인) 관련 안내 ©잉글랜드예술위원회

와 함께 예술가와 단체에게 필요한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예술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예술계가 정부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두 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부분의 경제적 영향과 재생을 위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영국의 예술 지원책은 일본메세나협회의 설문조사를 통한 현장·기업과의 소통, 스웨덴의 정부 규모의 지원시스템을 모두 활용하고 있는 사례다. ‘문화예술계의 현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 예술에 대한 지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잉글랜드예술위원회



#SGCultureAnywhere 프로젝트 ©www.a-list.sg

**“발 빠른 국가 예산 지원책 마련,
디지털 요소가 물리적인 요소를 보완하는 시대로”**

#싱가포르 예술위원회

다국적 전통예술 계승과 수용



싱가포르예술위원회(Singapore Arts Council)는 싱가포르 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치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됐다. 예술 산업 지원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예술계를 지속시키는 것, 지속적인 예술 단체 지원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확대하고 국제적 입지를 다지는 것, 마지막으로 조사 연구 사업을 진행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예술 교육, 축제, 예술가 및 단체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민족 화합 정책의 일환으로 다국적 전통예술 그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젊은 층의 전통 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각종 쇼케이스를 열고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전통예술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그들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장려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한 예술의 디지털화

싱가포르 문화예술계 역시 직격탄을 맞아 대부분의 공연이 취소된 상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신속하게 국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 지원책에는 싱가포르 예술가와 단체들이 코로나19 후에도 장기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약 48억 원의 문화 예술 회복 패키지(Arts and Culture Resilience Package)가 포함됐다. 더불어 2020년 4월 ‘싱가포르 예술에 대한 코로나19 릴리’라는 온라인 대규모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싱가포르예술위원회는 Digital Presentation Grant를 통해 예술가와 단체들이 디지털로 그들의 창작품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예술과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SGCultureAnywhere 캠페인을 추진하여 싱가포르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최고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가상으로 보고 듣고 방문하는 원스톱 포털 ‘더 에이 리스트(www.a-list.sg)’가 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갤러리 가상 투어, 전시 및 공연 하이라이트, 예술가와의 특별 인터뷰 등을 접할 수 있다. 싱가포르와 다른 국가의 차이점은 ‘디지털 요소’를 강조하는 데 있다. 물리적 제한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든 공연·예술 작품을 즐기는 시대를 목표로 한다. 코로나19 극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이후의 문화예술계 지속과 발전까지 고려한 미래지향적 지원책이라 볼 수 있다.

예술은 지속되어야 할 국가의 성장 동력

일본메세나협회가 기업들에게 한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문화예술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기업의 공통된 신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업이 문화예술을 지원할 때 긍정적인 브랜드 형성은 물론 지역 사회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스웨덴예술위원회 역시 모든 사람이 수준 높은 예술을 향유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었고 특히 문학 번역 지원사업에 적극적이었다. 번역 지원을 통해 그들의 문화를 널리 알려 스웨덴 문학을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잉글랜드예술위원회는 국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문화는 지속되어야 하며, 전 국민이 평등하게 문화적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정부와 국립 복권 기금에서 출현 3번의 긴급 대응 기금을 마련했다. 싱가포르 예술위원회는 디지털화에 많은 투자를 하여 문화예술의 온라인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각각의 나라들은 그들의 특성에 맞게 예술을 지원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의 공통된 신념은 ‘코로나 위기 안에서도 예술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절박한 상황일수록 예술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위안과 평안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모든 나라 예술계의 피해가 실로 막대하다.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일상생활은 물론 문화예술계 모두가 하루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문화예술계가 위기를 잘 극복해 대중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문화를 즐기기를 응원한다. **▼**



각각의 나라들은 그들의 특성에 맞게 예술을 지원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의 공통된 신념은 ‘코로나 위기 안에서도 예술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절박한 상황일수록 예술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위안과 평안을 준다 는 것이다.



2020년 7월 3차 추경예산 중 한국형 예술뉴딜 사업이 결정됐다. 한국형 예술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각 분야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예술분야 지원정책을 말한다. 크게 미술 분야와 공연예술 분야의 두 개 사업으로 나뉜다. 미술 분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사업이 있으며, 공연예술 분야는 공연예술 인력지원 사업이 해당 된다. 그중 지자체 별로 시행 중인 미술 분야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을 살펴본다.

예술로 뉴딜할 수 있을까

한국형 예술뉴딜 사업 현황



예술을 통한 '새 협의'의 시대

3차 추경안이 발표된 뒤 공공미술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지난 6월 4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뉴딜(공공미술) 프로젝트와 관련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주민 공동작업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추가적인 정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12월을 맞이하여 그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추진 현황 및 집행률 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뉴딜(New Deal)은 대공황시기인 1932년 대통령 선거전에서 대공황의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된 사업이다. 당시 공화당

의 허버트 후버 후보는 점진적인 경기 회복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의 루즈벨트 후보는 정부개입을 통한 적극적 개혁안을 제시했다. 미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합의(New Deal)’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대통령에 당선된 루즈벨트는 공약으로 내건 뉴딜 정책을 실행에 옮겼다.

1차 뉴딜(1933-34)은 알려진 바와 같이 도로, 댐, 교량, 공항, 공원과 같은 대규모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차 뉴딜 사업은 이후 4년에 걸쳐 진행됐다. 예술분야 지원 역시 뉴딜 정책의 일환이었다. 예술·극장·작가 프로젝트로 구분돼 각 분야의 다양한 예술가(화가, 배우, 음악가, 작가 등)들의 활동이 뉴딜 사업 명목 하에 지원됐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1933년 12월부터 1934년 6월까지 공원 및 공공건물을 장

식할 대형 벽화·장식·조각 등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운영해 3,700명의 미술가를 고용하는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뉴딜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성과는 1935년 시행된 사회 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다. 사회 보장법은 고령자, 실업자(예술가 포함) 및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 보험 제도를 정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술가들 역시 이 시기 사회보험에 가입해 지원을 받았으며, 사회보장은 예술가들의 안정적 활동에 일정부분 기여했다. 결국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소득을 지원하면서 사회보험까지 발전시킨 셈이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수행 위한 과제

미국 뉴딜 정책에서 착안해 올해 하반기 언급되기 시작한 한국형 뉴딜사업에도 문화예술 지원정책이 포함된다. 예술 뉴딜이라 할 수 있는 대표 분야는 공공미술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사업은 미술진흥 기반구축 사업의 세부사업으로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예술 지원책과 맞물려 크게 확대됐다.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역에 공공미술작품을 적극 설치하는 방안 등이다. 2020년 본예산 11억7천억 원에서 770억 원으로 약 700% 증가(증액 759억 원)했으며,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국고보조사업(국고보조율 80%, 지자체 20%)으로 추진된다.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사업비 729억6천만 원, 사업운영 및 관리비 28억 원, 사업총괄운영비 1억 원 등 총 758억6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사업은 예술인 약 8,500명(228개소×37명=8,43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자체에 공공예술 작품을 구축해 지역관광자원과 도시경관이 개선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있다. 사업추진 기간 부족에 따른 사업계획 미비, 지역 주민과의 소통, 지자체의 수요 파악, 사업효과 등의 측면에서 치열한 논의와 검증, 실행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미술 사업은 준비 기간 및 주민과의 소통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장기프로그램 계획을 보면 1년차에 대상지·지역커뮤니티 사전연구 및 주민 협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지자체 연구기관, 작가 협업)하고, 2~3년차에 미술 작품 제작 및 설치, 주민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는

“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있다. 사업 추진 기간 부족에 따른 사업 계획 미비, 지역 주민과의 소통, 지자체의 수요 파악, 사업 효과 등의 측면에서 치열한 논의와 검증·실행이 필요하다 ”

것으로 명시돼 있다. 현재 추경사업 진행 현황을 보면 지난 7월 21일 17개 광역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계획으로는 올해 12월까지 는 광역 혹은 지자체에서 대상지 선정과 주민협의 등을 통해 작품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1-2월에 주민만족도 조사 등을 수행해 2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이 충실하게 추진되기에 산술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사업효과에 대한 부분은 철저한 지역민 협의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일례로 도심과 지역 주요 장소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이 의도와 달리 반감을 불러일으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추경사업의 경우 작품 설치 후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부정적 결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미술 작품은 외부 공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므로 설치 후 사후관리와 보안작업에 대한 계획도 매우 중요하다.

지난 11월 말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을 통해 확인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사업 집행률을 보면 97%에 달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술 뉴딜사업이 지자체 국고보조사업(국고보조율 80%, 지자체 20%)으로 추진되며, 문화체육관광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로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되므로 높은 집행률을 보인다.

주지해야 할 점은 정책성과에 대해 지자체의 사업 집행 결과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결과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세워질 공공예술작품이 얼마나 주민들과 공감대를 이루며 환영받는 작품으로 지역에 안착하느냐는 지자체와 주민, 예술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에 달려있다. 

1가구 1브로드웨이

미디어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공연예술산업

전 세계 뮤지컬의 심장 브로드웨이가 지난 3월 공연장 문을 닫은 뒤 2021년 5월 30일까지 섰다운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웨스트엔드에서는 1986년 초연 이후 막을 내린 적 없는 ‘오페라의 유령’이 휴지기를 선택하는 등 전 세계 공연계가 유례없는 위기를 맞았다. 공연산업의 일시 멈춤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공연예술산업이 비대면 시대의 돌파구로 집중 조명되고 있다.



뮤지컬영화 '42번가' 포스터, 1933년 뮤지컬영화 '싱잉인더레인' 포스터, 1954년



공연 관객을 넘어 디지털 미디어 수용자의 다양한 취향과 니즈를 공략하기 위해 인접 문화예술 장르와 연계한 크로스 미디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코로나19로 공연 영상화 사업 가속화

2000년대 중반 이후 뉴욕 메트로폴리탄오페라의 'The Met: Live in HD', 영국 내셔널시어터의 'NT Live' 등을 필두로 라이브캐스트 시네마 시어터(Livecast Cinema Theatre)가 확대된 해외 주요 시장에서는 공연 영상화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 반면, 국내는 코로나19 상황 이전까지 영상화에 대한 경험과 고민이 적었다. 올해 초 갑작스레 취소된 라이브 무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녹화된 공연의 영상을 제공하거나 무관중 공연을 촬영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했지만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는 못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단체들이 공연의 영상화 과정을 보다 체계화하고 유료화를 시도해 본격적으로 미디어 플랫폼으로의 진출을 다각화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의 유료화는 젊은 관객층의 팬덤이 두터운 뮤지컬에서 두드러졌다. '모차르트', '잃어버린 얼굴 1895', '어쩌면 해피엔딩' 등은 공연의 실황녹화 영상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서비스해 티켓을 판매했으며, '귀환'과 '광염소나타'는 라이브 무대를 온라인으로 유료 생중계했다. 아직은 영상화된 무대의 미학적 완성도를 담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미비한 만큼 여러 부분의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시장을 타진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시도다. 하지만, 새로운 관객층을 확보하기보다는 특정 작품이나 배우의 팬덤에 기대어 가는 양상이 눈에 띄며, 안정적인 전문 스트리밍 플랫폼의 확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과금 체계 마련 등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특히 뮤지컬 시장 전체 규모에서 라이선스 작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에 비해 영상으로 제작 가능한 작품은 영상화 권리 확보가 용이한 창작 작품으로 치우친다는 점에서 작품의 인지도나 브랜드 파워의 한계도 극복해야 한다.

온라인에 최적화된 숏폼 인기

라이브 무대를 영상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웹 콘텐츠 양식으로 영역을 확장한 작품들도 있다. 5-15분 안팎의 짧은 영상으로 연극과 뮤지컬을 제작해 온라인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예술의전당은 지난 11월 숏폼 콘텐츠인 '플레이 클립스(Play Clips)'를 선보이며 연극을 5-6분 내외의 짧은 비디오



넷플릭스가 2021년 선보일 뮤지컬 '다이아나' ©https://thedianamusical.com



TV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라이브' 포스터, 1965년 ©20th Century Fox

로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첫 작품으로는 연극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을 40분으로 압축해 총 5개의 비디오 클립으로 쪼개어 구성했다. 또한 EMK엔터테인먼트는 국내 대표 MCN 기업인 샌드박스 와 함께 웹 뮤지컬 '킬러 파티(A Killer Party)'를 런칭했다. 9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숏폼 콘텐츠로 앞서 미국에서 제작된 온라인 뮤지컬의 한국 버전이다. 숏폼 콘텐츠 제작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미디어 시장에서도 이미 도입한 트렌드다. 2019년 tvN '신서유기 외전: 삼시세끼-아이슬란드 간 세끼'가 5분 편성 예능을 최초 시도한 데 이어 MBC '나 혼자 산다'의 스펀오프인 '여은과' 등 기존 방송에서 확장해 유튜브를 통한 숏폼 콘텐츠로 제작된 바 있다. 공연계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본격적인 영역 확장에 나선 것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된 새로운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변화하는 미디어 패러다임과의 점점 확대가 관건

공연의 영상화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공연과 미디어의 상호작용, 특히 공연의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으로의 전이는 이미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오던 양상이다. 또한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기존 미디어 시장의 과열된 경쟁과 온라인 미디어의 급속한 성장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IPTV를 넘어 OTT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미디어 시장에서 시청자를 사로잡을 경쟁력 있는 콘텐츠의 확보는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라이브 무대로 명성을 얻은 공연 작품은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부터 대학로 연극과 뮤지컬 24편을 영상화해 U+tv와 U+모바일tv에 '대학로 라이브(Live)'로 제공하여 2019년 오프라인 연극 관람객의 14.7%에 달하는 25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끌어 모은 바 있다. 또한 LG아트센터와 함께 디지털 스테이지 '킴온(CoM On)'을 론칭해 해외 유명 단체들의 작품을 선보였고, '2020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제17회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등 영상을 독점 제공하며 공연 콘텐츠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KT 역시 지난 7월부터 자사의 OTT 플랫폼 '시즌(Sezon)'을 통해 뮤지컬 토크쇼 '뮤:시즌'을 제작해 서비스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2021년 신작 뮤지컬 '다이아나(Diana)' 영상 제작에 참여한다. 뮤지컬 영화나 TV 뮤지컬 등이 익숙한 해외 시장에 비해 영상미디어로 연극·뮤지컬 장르가 확장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국내 공연계에는 미디어 기업과의 협업이 다소 낯설 수 있다. 하지만 카카오TV에 이어 네이버, 쿠팡까지 OTT 시장의 본격 진입을 준비 중인 가운데 미디어 플랫폼 간 경쟁은 공연시장의 확장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연과 영상미디어 두 산업을 폭넓게 이해하는 전문 제작인력 및 안정적인 유통망의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공연 관객을 넘어 디지털 미디어 수용자의 다양한 취향과 니즈를 공략하기 위해 인접 문화예술 장르와 연계한 크로스 미디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코로나19로 촉진된 미디어 비즈니스와의 연계가 공연예술산업을 확장할 수 있는 유용한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

Overcome COVID-19 concert with MECENAT

2020 언택트 회원 음악회

코로나19로 인해 공연들이 연중 줄줄이 취소되면서 예술체험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실히 깨닫고 있는 요즘이다. 한국메세나협회 또한 올해 예정돼 있던 회원음악회와 아츠프렌즈 등 회원사 임직원 예술체험 행사를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협회는 지난 11월, 아츠프렌즈 사업에 참여한 5개 단체와 함께 비대면 공연 영상을 제작했다. 힐링과 희망의 메시지 담은 음악회에 소개된 다섯 예술단체와 공연 영상을 소개한다.



비토

▶ 비토
모바일 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비토 공연 영상 편집본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시대와 장르 초월한 기타 선율

비토(VITO)

국내 유일의 남매 클래식 기타리스트 이성준과 이수진으로 구성된 실력파 기타 듀오다. 정통 클래식부터 국악, 스페니쉬 탱고, 영화음악, 재즈 등 여러 장르의 레퍼토리를 아우르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시대와 장르를 초월한 다양한 음악들을 클래식 기타만의 격조 있는 연주로 재해석해 녹여낸다.

비토는 무대 첫 곡으로 스페인 국민 피아니스트인 엔리케 그라나도스의 'Valses Poeticos No.1'을 연주했다. 우아하고 서정적이면서 스페인 특유의 느낌이 잘 드러난 곡으로 피아노 연주보다는 기타 연주자들의 레퍼토리로 더 많이 연주되고 있다. 두 번째 무대는 베트남전을 다룬 영화 '디어 헌터'의 테마곡으로 사용돼 큰 인기를 얻은 'Cavatina from Deer Hunter'다. 1970년 스탠리 마이어스의 피아노곡이었으나 1978년 기타리스트 존 윌리엄스의 요청으로 스탠리 마이어스가 기타 곡으로 다시 만들었다. 마지막 곡은 피아니스트이자 뉴에이지 음악 작곡가인 양방언이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의 공식 주제가로 선보여 인기를 모은 'Frontier'다. 비토만의 정통 클래식 기타 연주로 편곡돼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메이트리

▶ 메이트리
모바일 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메이트리 공연 영상 편집본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진한 울림과 감동 전하는 아카펠라

메이트리(May Tree)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반주를 만들어 연주하는 혼성 아카펠라 연주 단체다. 2005년 데뷔 이래 꾸준히 재즈, 팝 등 다양한 음악 장르를 아카펠라로 연주하는 등 뛰어난 실력을 보유한 팀이다. 현재 방송, CF, 공연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메이트리는 이번 회원 음악회를 통해 총 세 곡의 대중가요를 편곡해 선보였다. 1995년 그룹 솔리드가 발매한 두 번째 정규앨범에 실린 '이 밤의 끝을 잡고'는 원곡의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되 메이트리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독특한 무대를 연출했다. 두 번째 곡은 'Fly to the moon'이다.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바트 하워드가 1954년 작곡해 발표한 로맨틱한 재즈곡이다. 메이트리는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경쾌한 리듬으로 곡을 완성했다. 마지막 곡은 1992년 빈진섭 5집 앨범에 실린 김형석 작곡의 '그대 내게 다시'다. 곡 특유의 감성 멜로디에 아카펠라의 고급스러움을 더해 레트로와 모던의 진한 감성을 담았다.

어깨 들썩이는 신명나는 국악 한 판

동락연희단

2013년 설립된 동락연희단은 전통예술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이라 할 수 있는 '전통연희'를 중심으로 현대에 맞는 연희공연을 만들어가는 단체다.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어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정신을 계승해 남녀노소 한 자리에서 신명나게 즐길 수 있는 진정한 모습의 '연희'를 실현시키며 국악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큰 호응을 얻은 작품명은 <꾼>이다. 팽과리·징·장구·북 네 악기로 연주하는 사물놀이 연주방식을 변형시켜 구성한 작품이다. '앉은반(앉아서 하는 국악 연주 방식)' 연주 형태로 진행해 흥겹고도 속도감 넘치는 연주를 선사했다.



동락연희단

동락연희단

모바일 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동락연희단 공연 영상 편집본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희망 전하는 따뜻한 위로

이상희 앤 프렌즈

이상희 앤 프렌즈는 2007년에 국제백신연구소(IVI)의 '전 세계 어린이 생명 살리기' 홍보 연주팀으로 결성돼 음악으로 전 세계의 어린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19세기 초 이탈리아 작곡가 비토리오 몬티가 헝가리의 민속 무곡 차르다시를 바탕으로 작곡한 'V.Monti Czardasi for strings and Piano'를 연주했다. 느린 도입부로 시작해 후반부에서 강렬하게 끝맺는 반전 매력이 포인트다. 두 번째 곡은 영국의 저명한 작곡가 헨리 비숍이 1823년 작곡한 'Home sweet home for strings and piano'다. 우리나라에는 '즐거운 나의 집'으로 불리며 많이 애창되고 있다.



이상희 앤 프렌즈

이상희 앤 프렌즈

모바일 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이상희 앤 프렌즈 공연 영상 편집본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Academy of Passion & Sharing)

바이올리니스트 겸 지휘자인 진윤일에 의해 2012년 창단된 단체다. 정통 클래식 음악을 바탕으로 가요, 국악, 재즈 등 여러 장르의 음악과 결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발전시켜 대중들에게 풍성한 음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영국 작곡가 칼 젠킨스의 'Palladio'를 연주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건축가 안드레아 팔라디오의 한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3악장 형식의 교향곡이다. 이어 고(故) 김광석 4집에 수록된 '일어나'와 김민기의 '아름다운 사람'을 연주하며 위로와 힐링을 전했다. 무대의 대미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Arioso'로 꾸며졌다. '노래하듯'이라는 뜻의 제목답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선율이 무대를 평온하게 채웠다.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

모바일 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 공연 영상 편집본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문화기업으로 가는 길

하나. 문화로 인사합시다.

법인세 부담도 낮추고,
기업의 이미지도 살리는 1석 2조의 방법입니다.

문화절대비란?

공연,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예술 축제, 문화예술 강연 등의 입장권이나 도서 및 간행물, 음반, 영화, 100만원 이하의 미술품을 구입해 집에 사용하실 경우, 사용액만 큰 해당 기업의 절대비 한도액에 추가로 손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절대비 한도액의 20% 범위 내)

문화절대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1. 절대비의 건전한 사용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절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 문화경영을 통해 임직원들의 직장생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둘. 문화에 기부 하세요

기부도 하고, 법인세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기부란?

별도의 반대급부 없이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상품에 현금,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게 기부할 경우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메세나협회는 법인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협회 회원은 누구나 한국메세나협회를 통해 지정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문화로 소통하고, 문화에 기부하는 것은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초석을 놓는 일입니다.

1980년대 초, 뉴욕 화단에 혜성처럼 나타난 한 청년 작가는 자유와 사회에 대한 저항의 에너지로 점철된 다양한 작품을 통해 20세기 시각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짧은 생을 마감하기까지 8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3,000여 점의 작품을 남긴 현대미술의 이단아, 장 미셸 바스키아 (이하, 바스키아)다.

날선 시선 차가운 포효

롯데뮤지엄 <장 미셸 바스키아 - 거리, 영웅, 예술>展



앤디 워홀이 1982년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은 장 미셸 바스키아의 사진

거리의 이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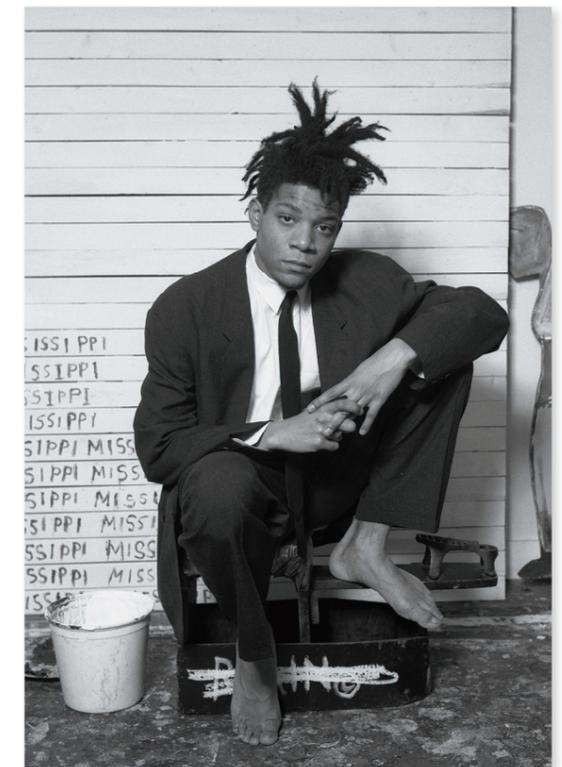
바스키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유분방한 화법을 구현하는 동시에, 이질적이고 거친 이미지가 혼재된 독특한 작품으로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작가다. 어릴 적부터 예술 방면에 조예가 깊던 어머니 영향으로 뉴욕의 주요 미술관을 함께 다닌 경험 덕에 다빈치부터 피카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명화를 감상하며 미술사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았다. 1978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집을 나와 거리 생활을 하던 바스키아는 브루클린과 소호 거리 여기저기에 저작권 기호를 접목한 'SAMO©(세이모)'와 함께 물질만능주의와 권위적인 사회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남겨 새로운 미술 형태를 보여줬다. 당시 백인들로 뒤덮인 소호 지역의 갤러리들은 그의 색다른 행보에 신선한 충격을 받으며 주목하기 시작했다. 업소와 티셔츠에 그림을 그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바스키아는 문화예술 분야와 장르를 막론하고 다양한 예술계 인사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 특히 평소 존경하던 앤디 워홀과의 만남은 두 작가 모두에게 새로운 예술적 동력이 됐다. 두 작가의 협업은 혹평을 받았지만 우정은 변치 않았다. 1987년 아버지와도 같았던 앤디 워홀이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하자 바스키아는 큰 충격을 받고 주변과 연락을 끊은 채 홀로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으로 떠날 결심을 한다. 그러나 방문 엿새를 앞두고 바스키아는 유명을 달리한다. 거리의 이단아에서 세계 화단의 유망주로 떠오른 바스키아의 작품은 자유와 저항정신의 상징으로 꼽힌다. 현재까지도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새로움을 대변하는 문화 전반의 아이콘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Victor 25448> 캔버스에 아크릴·오일 스틱·왁스·크레용 외, 182.9×332.7cm, 1987



<Untitled (Bracco di Ferro)> 캔버스에 아크릴·오일 스틱, 182.9×182.9cm, 1983



장 미셸 바스키아 프로필 사진



“
”

바스키아는 산업화로 인해 변화된 제작 방식과 대중문화의 다양한 이미지를 즉흥적이면서도 감각적으로 조합하여 시각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롯데뮤지엄 전시 전경

부조리한 삶에 대한 물음표

〈장 미셸 바스키아 - 거리, 영웅, 예술〉 전시회는 ‘거리, 영웅, 예술’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바스키아의 예술 세계 전반을 조망하는 회화, 조각, 드로잉, 세라믹 그리고 사진 작품 등 150여 점을 선보인다. 뉴욕 거리에서 시작된 SAMO© 시기를 기록한 사진 작품을 중심으로 바스키아의 초창기 예술세계가 담긴다. 이어서 창조한 영웅의 다양한 초상화를 통해 삶과 죽음, 폭력과 공포, 빛과 어둠이 투영

된 시대상과 인간 내면의 원초적 모습을 함께 돌아본다. 마지막으로 제작 방식이자 구성요소인 텍스트와 드로잉, 콜라주와 제록스 기법이 혼합된 작품들을 통해서 함축적 은유와 상징으로 점철된 이미지들이 생성되는 과정뿐 아니라 앤디 워홀과 함께한 대형 작품을 전시해 서로 다른 두 거장이 교류하며 새롭게 발전시켜 나간 예술세계를 감상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시작과 동시에 최고의 인기 작가 반열에 오른 장 미셸 바스

키아의 작품은 지금까지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바스키아는 산업화로 인해 변화된 제작 방식과 대중문화의 다양한 이미지를 즉흥적이면서도 감각적으로 조합하여 시각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보일 듯 말 듯 써 내려간 텍스트와 서로 대립하는 이미지들이 동등한 구조로 배치된 바스키아의 작품은 논리적인 사고의 틀을 전복시켜 기존의 가치를 뒤 흔드는 새로운 차원의 문맥을 형성했다.

바스키아는 만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지만 보는 것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창조함으로써 삶의 부조리한 가치에 의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의 질문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을 향한다. 중첩된 상징과 은유를 통해 시대의 억압에 저항하는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장 미셸 바스키아 - 거리, 영웅, 예술〉展은 2021년 2월 7일까지 롯데뮤지엄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초상’은 예술가들에게 수많은 영감을 주며 예술의 역사와 함께 해온 분야다. 예술가들이 재현한 초상 작품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한다. 스페이스K 서울 개관전 <일그러진 초상>은 정신분열이나 집단 광기, 폭력이나 피해 망상을 비롯해 우리가 망각하거나 애써 모른 채하고 있는 부조리에 끊임없이 ‘지금 이대로 괜찮은지’ 질문을 던진다.

부조리를 마주한 정직한 시선

스페이스K 서울 <일그러진 초상>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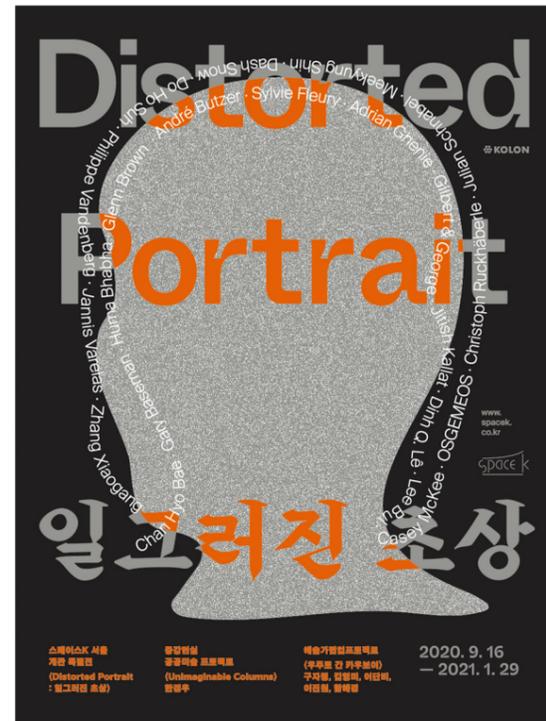
첫 개관 전시로 만나는 주목받는 해외 현대미술 작가

고밀도의 도시 속에서 녹지와 기술 융합, 예술의 만남을 추구하는 코오롱그룹의 ‘스페이스K 서울’이 지난 9월 16일 마곡산업단지에서 개관했다. 지역민과 예술인을 위한 메세나의 새로운 행보로서 서울 서남부지역 전시 명소로 오른 전부터 이슈로 떠올랐다. <일그러진 초상>은 스페이스K 서울이 야심 차게 준비한 개관전이다. 회화, 사진, 조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인간의 내면을 시각화한 작품 30여 점을 2021년 1월까지 무료로 선보인다.

전시 참여 작가 중 영국 글렌 브라운이 눈길을 끈다. 초상화, 풍경화, 삽화 등 르네상스 시기부터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기존 작품들을 작가 특유의 작업으로 전유하여 왜곡하고 변형한다. 2011년 비엔나의 쿤스트할레와 2013년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등 주요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2000년에는 영국 터너 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글렌 브라운은 렘브란트와 벨라스케스, 피카소, 바젤리츠와 같은 대가들의 작품의 색상과 위치, 크기를 변경하여 새로운 이미지로 재생산한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출신의 화가 안드레 부처도 참여 작가 중 한 명이다. 미국과 독일의 역사와 정치, 경제, 사회 계층,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과학 기술에 이르기까지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이루는 모든 것들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는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갈색 코트와 흰 장갑을 착용하고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주인공이다. 두터운 붓질과 강렬한 색채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루마니아 출신의 화가 안드리아 게니는 유럽 역사의 폭력

성에 주목한다. 황량한 풍광을 배경으로 형태가 바랜 인물 묘사를 특징으로 하는 그의 회화는 과거의 권력자들을 화폭으로 불러내 어두운 풍경과 거친 필치로 공포와 불안이 엄습한 화면을 연출한다. 이렇게 안드리아 게니는 인간 존재의 가장 어두운 영역을 묘사하고 해당 인물의 복잡한 심리적 풍경을 재현한다.



스페이스K 서울 개관전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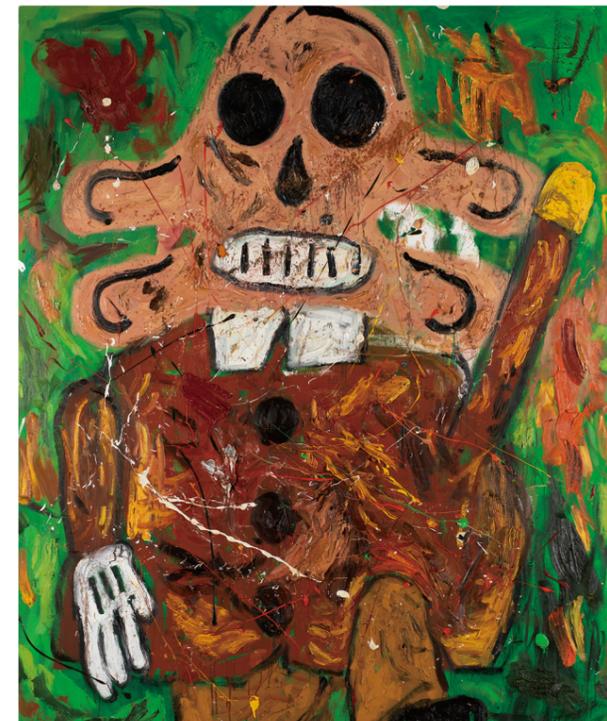
“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갈색 코트와 흰 장갑을 착용하고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주인공이다. 두터운 붓질과 강렬한 색채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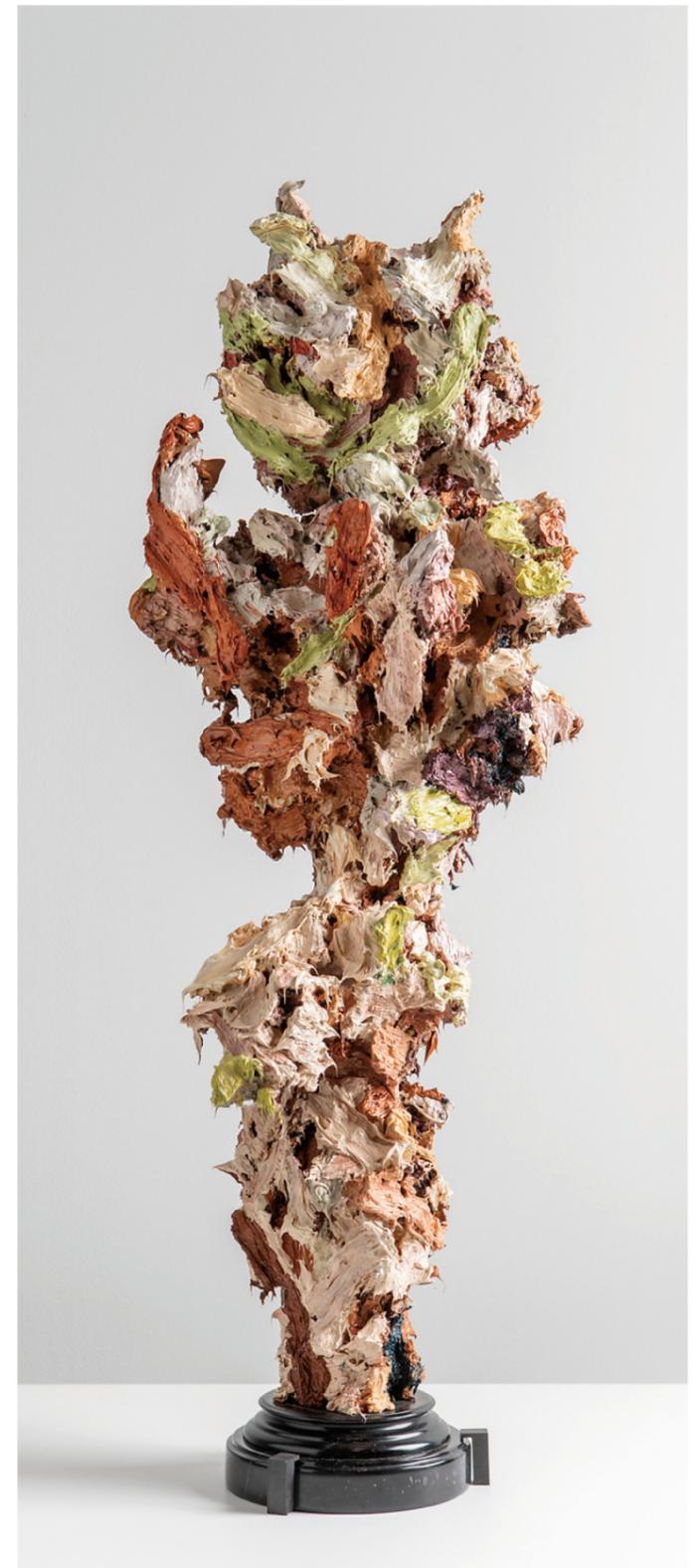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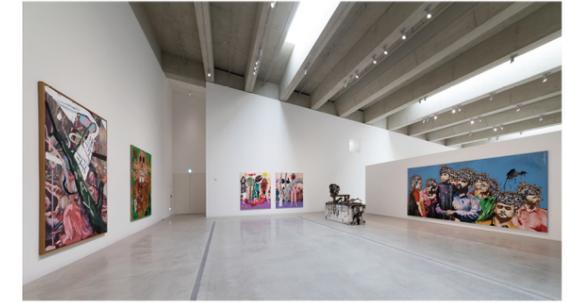
안드리아 게니 <Berghof> 캔버스에 오일, 210x150cm, 2012



안드레 버처 <Untitled(wanderer)> 캔버스에 오일, 300x241cm, 2007



글렌 브라운 <Woman I> 스틸 구조·브론즈 외, 98x35x35cm, 2015



스페이스K 서울 개관전 <일그러진 초상> 전시 전경

그밖에 세계적으로 호평받는 베트남계 미국 예술가 딘큐레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전쟁과 이민 문제를 다뤘은 그의 작품들은 뉴욕 현대미술관, 카네기 박물관, MoMA PSI, 일리노이주 현대미술관, 아시아 소사이어티 등 국제적인 기관에 전시되거나 소장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독특한 개념의 정교한 조각과 설치, 영상 작업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쌓은 서도호 작가가 참여했다. 1998년 카파 미술상 수상을 필두로 2001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대표로 선정된 이력이 있다. 작가는 이번 개관전에서 자신이 입었던 교복을 내세워 한국 사회의 권력과 집단적 통제를 비판한다.

증강현실로 구현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야외 공원에는 한경우 작가의 작품인 <Unimaginable columns>가 설치됐다. 증강현실 기술과 현대미술이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공공 미술 프로젝트다. 관람객들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한경우 작가는 실제의 이미지와 매체를 거쳐 바라보는 대상의 괴리로 우리의 불안정한 시각을 환기시킨다. 이번 증강현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는 AR로 구현된 5m 높이의 글자 기둥들을 미술관 앞 야외 정원에 설치한다. 관객의 위치에 따라 대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의도된 작가의 작품은 관객이 원하는 글자를 출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관객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스페이스K 서울은 현대인의 자화상에 대한 비판적 감수성과 증강현실을 통한 공공미술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담으며 예술의 확장적 기능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



With 코로나 With 메세나

‘코로나 시대의 메세나 : 기업의 예술지원 전략 모색’ 온라인 세미나 개최

비대면 예술협력 모색

한국메세나협회는 지난 10월 21일,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의 예술협력 전략을 모색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메세나협회,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방역 관리를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하고 네이버TV 세종문화회관 채널과 문화체육관광부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과 기업의 문화예술 협력활동이 축소되고 대면활동의 제한으로 예술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침체된 예술계의 회복 방안과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필요성, 기업 경영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비대면 예술협력 사례와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벽산엔지니어링 김희근 회장은 ‘코로나 일상 시대에 적응하는 기업 문화예술 지원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았다. 2010년 벽산문화재단을 설립해 예술계 후원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메세나인으로 한국메세나협회 부회장이기도 한 김희근 회장은 “삶의 안정과 문화예술은 서로 맞닿아 있다”며 인간의 삶과 문화예술의 필연적 관계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는 독립이후 70여 년의 시간동안 경제 발전과 함께 정부의 지원으로 크게 성장했다며 “이제는 동반 성장해온 기업들도 문화예술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기업의 지원 활동이 지속되어 훌륭한 문화 콘텐츠가 창조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메세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부문 예술 지원에 대한 정부의 세제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기조연설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예술 협력 사례가 발표됐다. KT 이선주 지속가능경영단장은 관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로 소극장들의 공연 티켓을 선 구매하는 ‘사랑의 소극장’ 사업과 ICT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클래식 공연 지원 사례를 소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KT의 기술력을 활용해 문화 예술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메세나 활동을 이어나

01-02
방역지침을 지키는 가운데 무관중으로 진행된 온라인 세미나 현장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메세나협회 이충관 사무처장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기업들의 비대면 문화공헌 사례를 소개하고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메세나 활동이 ‘오프라인 창작 지원’에서 ‘온라인 예술 콘텐츠 지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확산으로 디지털 경제체제로의 변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다양한 기술과 시도를 통해 계층 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는 기업의 문화CSR 영역이 확장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세종문화회관 김성규 사장은 예술현장의 중심인 공연장을 운영하며 ‘내 손안의 극장’ 사업을 통해 세종문화회관의 자체 공연을 온라인으로 제공해왔고 이러한 경험은 ‘힘내라 콘서트’ 등 온라인 공연 사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여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고 전했다. ‘힘내라 콘서트’는 약 50만 명이 시청하며 대표적인 온라인 공연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김성규 사장은 “온라인 콘텐츠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지속성을 위해 네이버TV 채널 최초로 온라인 기부 프로그램을 연동한 유료 공연을 도입해 유료화를 통한 온라인 공연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온라인 공연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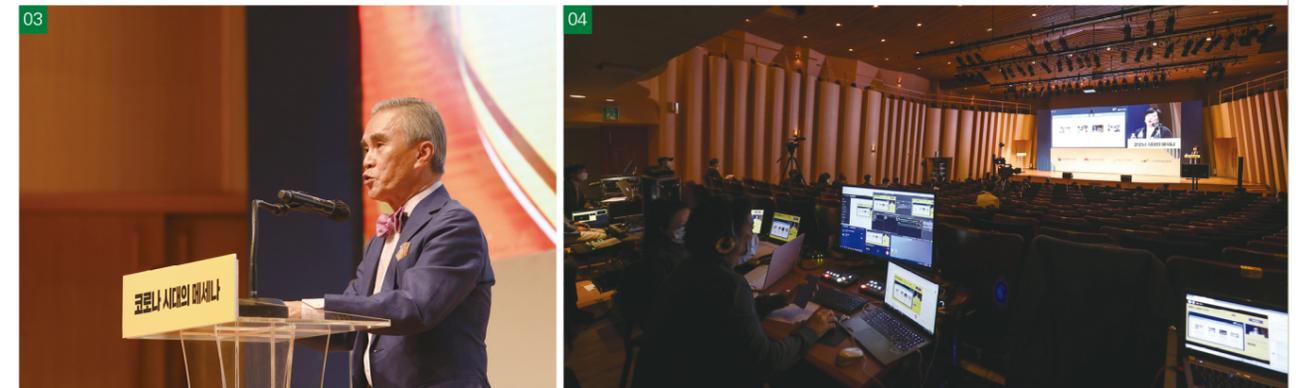
지속 가능한 예술 가치 확산 필요

‘기업과 예술계의 새로운 협력 모델 구축 방안과 상생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재승 문화예술후원센터장과 중앙일보 김호정 기자가 참여했다. 이재승 센터장은 “공공지원에 대한 재원 활용 제약이 있어 결과물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며, “이번 코로나 확산과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에서는 예술계의 대응을 위한 과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고 공공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업과 민간부문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어 김호정 기자는 온라인 공연의 명암을 이야기하며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단순 생계 지원 차원의 예술 후원이 지속된다면 예술의 본연적 존재 가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일수록 예술계는 콘텐츠의 경쟁력을 쌓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단기적인 위기 극복 지원 활동이 아닌 예술 가치 확산에 대한 뚜렷한 철학을 가진 기업의 메세나 활동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LG아트센터 심우섭 대표와 극단 동그라미그리기 조일영 대표는 화상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예술 현장의 현황을 전하며 정부와 기업의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

03
기조연설 중인 벽산엔지니어링 김희근 회장

04
이번 세미나는 네이버TV 세종문화회관 채널과 문화체육관광부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01 악기 기증식 현장
02 산흥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무대

나는 내 꿈의 지휘자!

동서식품 & 산흥오케스트라 '제13회 맥심 사랑의 향기'

지난 10월 27일 동서식품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산흥초등학교에서 '제13회 맥심 사랑의 향기' 악기 기증식을 진행했다. 올해 13회째를 맞은 '맥심 사랑의 향기'는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선사하는 '동서커피 클래식'과 더불어 동서식품의 대표적인 문화공헌 활동이다. 한국메세나협회와 어린이 오케스트라를 발굴해 필요한 문화자산을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며 2009년부터 시작해 지난 12년 동안 총 3억 2천여만 원 상당의 악기와 음악실 개보수를 지원해왔다.

전교생이 72명인 산흥초등학교는 2012년부터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는 내 꿈의 지휘자!"라는 모토 속에 전교생이 모두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 청소년 음악제에도 출전해 매년 수상하는 등 실력도 뛰어나고, 특히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회와 관내 노인병원 위문 연주 등 꾸준히 재능기부도 펼치고 있는 지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어린이 오케스트라다. 특히, 2019년도에는 예술교육 활성화에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동서식품은 산흥오케스트라 음악 꿈나무들에게 그동안 운영비 확보가 어려워 구매를 미뤘었던 고가의 비브라폰, 글로켄슈필, 호른, 트럼펫, 트롬본, 테너·알토색소폰, 클라리넷, 피콜로 등의 악기 19점을 기증했다. 또한 동서식품이 개최한 동서커피클래스 공연의 역대 실황을 담은 USB 앨범을 전달했다. 동서식품 최상인 홍보상무는 "맥심 사랑의 향기는 매년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해당 지역의 자라나는 음악 꿈나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커피 향과 어울리는 다양한 문화예술 나눔 활동을 통해 동서식품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외곽에 위치한 농촌학교이지만 폐교위기와 교육격차 해소 방안으로 '예술교육'을 선택한 산흥초등학교는 전교생이 오케스트라 활동에 애정과 자부심을 갖고 음악으로 화합한다. 꿈을 연주하는 산흥오케스트라는 동서식품으로부터 받은 새 관악기들을 통해 더욱 풍성한 연주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우직하고 성실한 이들에게 보내는 찬사

(주)엔이아이기술 & 즐거운생활 연극 '배를 엮다'

손가락 끝으로 종이를 조심스럽게 쓰다듬는다. 한 장, 두 장 넘기며 느껴보는 무게감. 종이를 빛에 비춰보니 희미하게 붉은 빛이 돌고, 얇지만 잉크가 뒷면에 비치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그토록 찾던 '궁극의 종이'다. 모두 탄성을 질렀고, 감격하나 머지 서로 꼭 껴안았다. 국어사전의 본문 용지를 고르는 작업, 연극 '배를 엮다'의 한 장면이다.

예술단체 '즐거운생활'은 11월 5일부터 4일간 여행자극장에서 국어사전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며 미우라 시온의 동명 소설을 무대화했다. 15년에 걸친 사전 한 권의 편찬 과정을 담담하면서도 재치 있게 풀어내, 현대 사회가 잊고 지내는 다양한 아날로그적 가치의 소중함과 소통의 진정한 의미를 전했다.

단어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싶다는 뜻

신문지를 뒤적이는 사람도, 책장을 넘기는 사람도 찾기 힘든 요즘, 모르는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 종이 사전을 펼치기란 극히 드문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극 중 선경출판사 사전편집부 직원들은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을 담는다는 일념으로, 수천만 개의 단어를 발품 팔아 일일이 수집·분류하고 타출판사 사전들과 비교하며 어원과 그 쓰임새를 쫓는다. 설명이 정확하고 알기 쉬운 지, 용례가 적절한 지 등을 살피다가도 단어 하나가 빠지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 끝에 그들이 완성한 사전의 이름은 대도해(大渡海)다. 넓고 깊은 '말의 바다'를 건너기 위한 '배'가 될 수 있는 사전을 만들어낸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 진심을 다하고 끈끈하게 뭉치는 이들의 이야기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느림'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선사한다.

'즐거운생활'의 문하나 대표는 "작품을 통해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언어가 가진 가치를 전달하고자 했다"며 "지금은 무언가를 열심히, 성실하게 하지만 센스가 부족한 사람은 조롱과 놀림이 되는 세상이다. 자기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하는 것 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응원과 찬사를 보내는 작품"이라고 전했다.

한편 '즐거운생활'은 팬데믹 속에 단절이 장기화되면서 의미가 변하거나 새로운 의미가 더해진 단어들을 시민들로부터 수집, 공연의 연장선으로 <용례채집* : 관계의 재해석> 전시를 개최해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했다. 📌

*용례채집 : 단어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사례와 예문 등을 채집하는 단계

01-02-03 사전편집부 사무실로 꾸며진 연극 '배를 엮다'의 무대 모습



그림에도 불구하고 예술이 비집고 들어와 생긴 틈에서

강원문화재단 & 신한은행 강원도청지점
부천문화재단 & 농협은행 부천시지부 · 국민은행 송내역지점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아이들에게 예술이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지난 9월, 홍천에 방문했을 당시 강원문화재단 담당자가 건넨 말이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다. 올해 강원문화재단은 어린이 시각예술 축제인 강원키즈트리엔날레2020(10.18-11.08)를 개최했다. 축제의 사전행사인 “신한은행과 함께하는 홍천 어린이 ART캠프”(이하 아트캠프)를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 사업으로 참여했다. 신한은행 강원도청지점의 소중한 기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아트캠프는 강원도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도내 전문 시각예술 작가들과 함께하는 미술 체험 활동이다. 춘천일기 최재현, Lucy(김민영), 김영훈 네 팀의 작가가 '자연 속 숨어있는 미술이야기'를 주제로 어린이들과 협업해 작품을 만든다. 8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춘천미술관, 와동분교 등 홍천군 일대에서 캠프가 진행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캠프를 병행했다.

와동분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현장을 방문했다. 오전 내내 날씨가 흐려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더니 도착했을 때는 해가 나기 시작했다. 내리쬐는 햇살에 형형색색 칠해진 학교 외관이 눈에 들어왔고, 운동장에는 예술가들이 만든 다양한 작품이 설치되어 있었다. 씬 캠프와 마스크로 무장한 아이들이 일렬로 서 온도체크와 출석체크를 했다. 이름표를 찾아 목에 걸고 네다섯 명씩 한 팀을 이뤄 학교 곳곳에 마련된 장소로 이동했다. 교실 앞에 자리한 아이들은 나무판에 그림을 그렸다. 마음에 드는 나무판을 골라 스케치하고 물감으로 칠해 알록달록하게 교실(수유실)을 꾸몄다. 교실 안에서는 파이프와 양동이를 가지고 조형물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구불구불한 파이프를 연결해 양동이에 끼워 완성한 작품들은 밖으로 옮겨져 운동장을 수놓았다. 학교 뒷마당에서는 아이들이 작가와 함께 나뭇가지를 찾고 있었다. 짧게 다듬은 나뭇가지에 손가락으로 찍어낸 초록 나뭇잎을 더해 작은 나무를 만들었다. 교실에 설치된 커다란 트리모양 조형에 작은 나무를 붙였더니, 교실은 온통 초록으로 물든 숲이 되었다. 아이들은 강원도와 홍천의 지도를 그리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구석구석 탐험했다. 작업을 하다 야외로 나가 2m가 훌쩍 넘는 나무작품에 올라 바람을 쐬고, 휴식을 취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어떤 아이들은 파이프를 들고 나와 아무렇게나 연결해 파이프 사이사이 땅을 밟으며 힘차게 뛰어놀기도 했다.

온라인 캠프에서 처음 만난 아이들은 쉬는 시간을 틈타 모니터 넘어 서로의 이름과 나이를 물으며 인사를 나눴다고 한다. 그 낯설지만 반가웠던 만남이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부천문화재단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날'이라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 사업에 참여했다. 재단은 미래사회의 주인인 어린이들이 음악과 미술로 자신을 표현하고,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고 상상해보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농협은행 부천시지부, 국민은행 송내역지점 두 은행의 기부로 재원이 마련되었다.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을 통해 모집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뮤직비디오와 이모티콘을 만드는 문화예술 워크숍에 참여했다. 지역의 청년예술단체 라온어스와 정선화 작가가 함께했다.

이모티콘 만들기 수업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칠판 앞에서 서로의 얼굴을 그리며 재잘거렸다. 그림 속 친구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미래사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을 기록하는 카드는 '바이러스', '물 부족', '환경오염', '쓰레기' 등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체감하고 있는 단어들로 채워졌다. 아이들은 '물을 아껴쓰자', '재활용을 하자', '쓰레기를 잘 버리자' 라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써내려가며 각자의 다짐과 미래를 위한 메시지를 담아 이모티콘을 완성했다. 뮤직비디오 만들기 수업에서는 '어른이 되어도 지키고 싶은 가치'를 주제로 가사를 쓰고, 랩을 만들어 멜로디로 엮었다. 배우가 된 아이들은 자유로운 몸짓으로 소중한 것들에 대해 표현하며 마음껏 흥얼거렸다.

“평범했던 나날들 소중한, 모두 함께한 추억 소중한,
사랑한다, 행복하다, 좋다, 기쁘다, 간다. 너에게 ...”
-‘세상을 변화시킬 빛*날’ 뮤직비디오 中-

부천문화재단 담당자는 아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기에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아마 강원문화재단 담당자가 건넨 말과 같은 의미였을 것이다.

물리적 거리가 단절되고, 그로인해 멀어지는 자신과의 혹은 타인과의 마음의 거리를 붙잡는 것이 쉽지 않은 때다. 이런 때에 예술은 아이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내면에 쌓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극해 잃어버린 자신을 찾게 한다. 그리고 멀어진 서로를 이어준다. 때문에 우리는 위기가 일상이 되고 있는 이 시기에 더욱, 아이들이 예술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예술을 통해 호명할 수 있도록 말이다.

홍천에서 작업하며 뛰어놀던, 부천에서 노랫말을 쓰고 미래를 상상하던 아이들에게 2020년은 어떤 세상으로 기억될까. 언제 사라질지 모를 바이러스로 가득 찬 세상이겠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예술이 비집고 들어와 생긴 틈에서 자신의 꿈의 패턴을 그려가던, 그런 세상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원해 본다. 🍀

01 아트캠프가 진행된 홍천의 와동분교 02 조형물 만들기 작업 03-04 뮤직비디오 만들기 수업



함께하는 메세나
- 메세나 가까이 보기 -



1 랜선으로 전하는 따뜻한 울림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01-02
세종문화회관 네이버 TV
온라인 공연 채널 '힘콘'과
협력해 개최한 오페라
희망이야기 랜선 음악회 현장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who
의료진 및 보건·방역 관계자
포함 전 국민

what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 팝
송 등 위로와 힐링의 음악과 함
께하는 랜선 오페라콘서트

세상을 향한 희망 노래

지난 11월 10일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극장은 빈 객석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위로와 희망의 노랫소리로 가득 찼다. 2020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오페라&콘서트'는 비대면의 한 방식인 랜선 음악회로 전환돼 관객들과 마음을 나눴다.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는 전국 병원을 찾아가 투병생활로 지친 환자와 가족들에게 오페라 음악 공연을 선물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투병 중인 환자와 가족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자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제안으로 2011년 시작해 병원에서 친근한 오페라와 뮤지컬 음악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오페라&콘서트'와 소아병동의 환아를 위한 어린이 맞춤형 '키즈 오페라'를 통해 음악으로 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존과는 다른 변화를 시도했다. 세종문화회관의 네이버TV 온라인 공연 채널인 '힘콘'과 협력해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하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울림'이라는 부제 아래 의료진과 보건·방역 관계자 그리고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시간을 마련했다.

글 박선현(문화사업팀 매니저)

마음에 꽃피운 음악 힐링

"우울했던 제 맘속을 다시 반짝반짝 빛내줘서 고마워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를 위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우리 의료원 선생님들께 새 희망과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극장을 가득 메우는 박수와 함성소리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전하는 실시간 댓글이 '나'와 '서로'를 위한 위로와 응원이 되었다.

종근당홀딩스 관계자는 "이전처럼 병원 로비에서 환자, 의료진들을 직접 만나 희망과 활력을 선사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지만, 온라인으로나마 방역 최전선에서 임무를 다하는 의료진들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따뜻한 울림이 전달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축되어 있는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시도와 움직임에 동참한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머지않아 음악과 함께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길 바라며, 새로워진 일상, 문화예술과 함께 따뜻한 울림을 전할 종근당의 문화공헌활동은 계속될 예정이다. ❖❖

2 놀며 배우며 스스로 지켜요~

금호타이어와 함께하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미술로 배우는 안전 상식

금호타이어는 올해 서울지역 내 초등학교 총 8개교(1,500명)에서 온라인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전 제작된 교육영상과 활동 키트(KIT)를 학교 측에 제공한 뒤 'OX 퀴즈를 통한 올바른 교통정보 익히기', '교통안전과 관련된 신체동작 창작하기', '내가 만드는 안전한 등하굣길' 순서로 온라인수업을 진행했다. 특히 각자의 로드맵에 차, 건물, 도로, 등의 스티커를 붙이며 교통사고 발생이 높은 등하굣길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학생 스스로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금호타이어는 올해 연말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사이버(SNS) 폭력예방교육과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해당 교육은 자체 제작한 워크북을 통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미술 키트(무드등, 핸드폰 그림톡)를 직접 만들어 언어의 중요성 및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체험해보는 교육이다. 특히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은 12월 17일 교육부가 주최하는 제9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에도 참가해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 많은 학교의 학생들과 실시간 소통으로 만나면서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온라인 교육을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다. ❖❖

금호타이어와 함께하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who
서울지역 내 초등학교 8개교
1,500명

what
사전 제작된 교육영상과 활동
키트를 활용해 'OX 퀴즈를 통한
올바른 교통정보 익히기', '교통
안전과 관련된 신체동작 창작하
기', '내가 만드는 안전한 등하굣
길' 온라인 수업 진행

01
금호타이어와 함께하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

02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현장

03
스티커를 붙이며
어린이 스스로 깨닫는 교통안전



글 오혜연(문화사업팀 매니저)

3 내 손안의 힐링 박스

한화예술더하기 '언택트 힐링 클래스'

언택트 힐링 클래스

who
전 국민

what
자투리 가죽공예, 친환경 플라워박스, 캘리그래피 키트 제공 및 언택트 강의

전 국민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2020년은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춰버렸고 기업 사회공헌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예전처럼 다수의 임직원들이 함께 의미 있는 활동을 하거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코로나블루로 지쳐 있는 전 국민을 응원하기 위해 한화그룹이 비대면 활동 '언택트 힐링 클래스'를 시행해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본 기사는 이 사업을 추진한 한화 사회공헌 담당 김현 차장과 <메세나> 필진이 나누는 이야기를 재구성했다.

메세나(이하 M) : 올해 어느 하나 수월한 것이 없었지만 사회공헌 활동 역시 제약이 많아 어려웠을 텐데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김현(이하 K) : 한화 교향악축제, 불꽃축제 등 큰 행사는 물론, 임직원 봉사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정말 컸습니다. 다행히 한화 교향악축제는 해마다 4월에 진행돼온 관행을 깨고 코로나19가 주춤했던 7~8월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이 됐어요. 하지만 불꽃축제는 너무나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라 취소가 불가피했습니다. 한화에서 사회공헌 업무를 13년간 해왔지만 올해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M :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언택트 힐링 클래스'는 매우 의미 있고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어떤 활동이며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K : 원래 '창의 충전 Arts Play'라고 한화 사업장을 비롯해 연계된 복지기관에 예술단체의 공연이나 창작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글: 장진숙(문화사업팀 차장)

사업을 올해 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아트힐링-예술로 힐링하자'는 콘셉트는 그대로 살리되 비대면 방식으로 참가 대상을 전 국민 '누구에게나'로 확대했습니다. 가죽공예, 종이공예, 캘리그래피 등 키트(KIT)를 예술단체와 함께 제작해서 신청자들의 가정으로 보내드리고, 참고영상도 함께 만들어서 공유했습니다. 신청자들은 각자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따라하면서, 창작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큰 호응을 얻었죠.

M : 요즘처럼 소위 '집콕' 생활이 지루하고 힘들 때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즐거움을 선물해 주셨군요. 멋진 키트 박스를 열어보는 설렘이 컸을 듯합니다.

K : 네. 실제로 "손재주가 없어 걱정했지만 과정 설명이 무척 상세해 영상을 보며 따라하니 잘 완성할 수 있었다"는 사연부터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생겨 기쁘다"는 후기들이 이어져 보람을 느꼈습니다.

01 언택트 힐링 클래스 KIT(플라워박스, 손글씨 무드등)을 소개하는 김현 차장



02-03 컴퓨터와 휴대폰 화면으로 영상을 보면서 KIT를 활용하여 창작하는 모습(사진 제공 한화프렌즈 기자단 '리인'과 '몽키')

04 한화 사내방송국과 한화시스템 용인사업장에서 각각 온라인으로 접속해 가죽공예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



공예 키트로 구현한 환경 친화적 예술 콘텐츠

M : 어떤 키트가 제공됐나요?

K : 1차 가죽공예 키트는 명품 가방 등을 만들고 버려지는 자투리 가죽을 활용했습니다. 2차 플라워박스도 친환경 재생지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콘셉트로 마련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활동'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니까요. 그리고 3차 캘리그래피 키트는 참가자들의 개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는 꿀팁이 다양하게 들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M : 멋진데요. 이번 사업의 강점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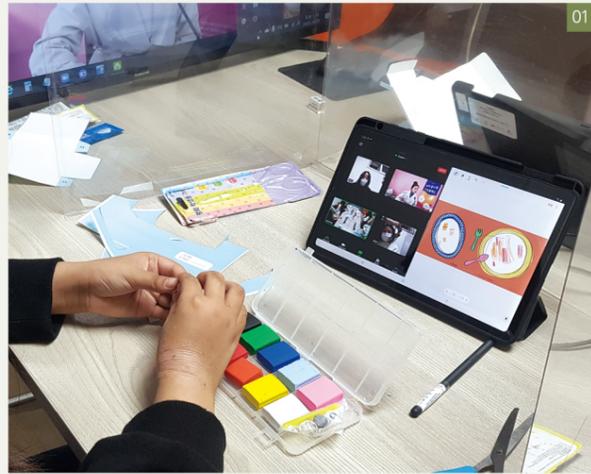
K : 그동안 사회공헌활동 중 상당수는 학교나 복지기관 등 협력기관을 중심으로 '그룹화'되어 운영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개개인을 위한 '개별화'된 방식이었

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평소 예술체험 기회가 없었던 분들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드릴 수 있어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M : 끝으로 <메세나> 독자들과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K : 한화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디지털과 사회공헌을 결합한 활동을 준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인재육성 플랫폼인 '드림인'을 통해 창업과 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불꽃약'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기업 등 잠재된 가능성을 가진 협력단체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한화 교향악축제나 한화클래스 등 메세나 활동은 온라인을 활용해 그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저변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단단히 준비하겠습니다. 📺





4 마음 움직이는 순수한 드로잉

우리카드 '우리 꿈나무 아트클래스'

종이 감성 그대로 화면에 담긴 동심

우리카드와 함께하는 '우리 꿈나무 아트클래스'는 10개 지역아동센터와 2개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실시간 비대면 미술 교육이다.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예술교육이 미뤄지면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온라인으로 찾아가 즐거운 미술시간을 만들고자 함이다. 사회적기업에 이드런과 함께 '대화중심 미술교육'을 중점 방향으로 삼고 정답이 없는 예술세계에서 아동들이 자신만의 창의적 사고능력을 스스로 확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강사와 아동이 충분히 소통을 통해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아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고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우리 꿈나무 아트클래스'에 참여하는 모든 아동에게는 교재가 내장된 태블릿과 직접 미술활동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재료 키트(KIT)가 제공된다.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책과 재료를 사용해 진행하던

글: 조권주(문화사업팀 매니저)

01-02
태블릿과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아트클래스 현장

우리 꿈나무 아트클래스

who
10개 지역아동센터와 2개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50명

what
참여하는 모든 아동에게 교재가 내장된 태블릿과 직접 미술활동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재료 키트(KIT) 제공 및 온라인 미술교육 진행

미술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되 부족함이 생기지 않도록 태블릿을 충실히 활용하고 있다. 아동들은 태블릿 내 온라인 활동 콘텐츠를 통해 교재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던 방식 그대로 그림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에이드런의 이호임 교육이사는 "예술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기에 한계를 느낀 부분을 우리카드 꿈나무 아트클래스를 통해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로 전환할 수 있었다"며 "수업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학습의 결핍 없이 교육을 진행하게 돼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업을 통해 탄생한 아동들의 재미있고 특별한 이야기는 에이드런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통해 재탄생한다. 아동과 함께 소통하며 예술적 감성을 키워주고, 대중들에게는 패턴 디자인을 통해 아동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제작된 일부 굿즈에 대한 판매 수익금은 사업에 참여한 복지시설에 기부될 예정이다. ▶▶

5 열정으로 잇는 드림 로드

한성자동차 '한성 드림 레이스' 모바일 게임 론칭

협업으로 완성한 커스터마이징 모바일 게임

드림그림 멘티, 멘토는 올해 6월부터 모바일 게임 론칭을 위해 디지털 게임 디자인과 관련한 온라인 아티스ٹ멘토링을 진행했다. 게임을 제작하는 '레이어랩'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게임 내에 등장하는 요소들을 구상하고, 직접 제작해보는 작업을 진행했다. 게임 속 배경과 방해물 그리고 랩핑카를 디자인하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미술활동뿐 아니라, 창작 및 게임 관련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됐다.

드림그림 장학생들은 게임 내에 등장하는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3종의 스킨 디자인에도 직접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총 75가지로 제작된 차량의 스킨으로 사용자의 취향의 맞게 게임 내 나만의 차량을 선택하고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

'한성 드림 레이스'는 코엑스 잔디광장에서 10월 30일부터 3일간 진행된 '한성 디지털 파크'의 드림그림 게임 존을 통해 방문객에게 게임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전시 부스에는 다양한 색상의 테



드림그림

01
드림그림 장학생과 엠버서더의 참여로 완성된 모바일 게임 속 차량 스킨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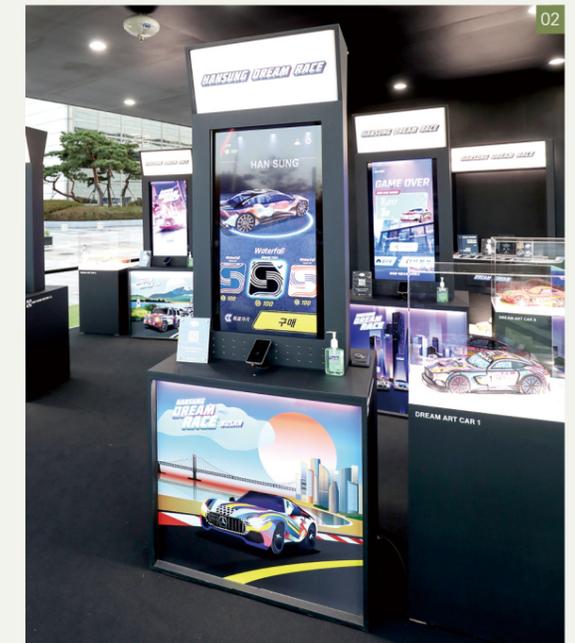
02
'한성 드림 레이스' 모바일 게임 시연 화면

who
미술에 재능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중·고생)

what
멘티, 멘토, 임직원 엠버서더로 매칭되어 아티스ٹ 멘토링, 페어참가, 재능기부 등 다양한 활동 진행

이프로 개성 있는 아트워크를 진행하는 테이프 아티스ٹ 박건우 작가와 함께한 메르세데스-벤츠 RC카도 함께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테이프를 오리거나 붙여 제작한 '드림 아트카'는 미완성 상태로 장학생들과 매칭되어 있는 한성자동차 임직원에게 전달됐다. 전국 전시 및 서비스센터의 임직원들은 라이브 온라인 수업을 통해 장학생들이 만든 차량에 스티커 및 리터칭 작업을 진행해 작품을 완성했다.

'한성 드림 레이스'는 구글 앱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글: 조권주(문화사업팀 매니저)

언택트 넘어 따뜻한 소통

현대차그룹이 국방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군 장병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2020 군인의 품격 온(ON)택트 소통 콘서트'를 진행했다.

온택트(On tact)는 비대면을 의미하는 언택트(Untact)와 온라인을 통한 연결(On)을 합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면하는 방식을 말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오프라인 콘서트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새롭게 전환했다. 현대차그룹 및 국방부 유튜브에 강연 영상을 공개해 60만 군 장병들뿐만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 일반인들에게도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이번 온라인 콘서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라"라는 주제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였던 이상화 선수, 다크멘터리 '아마존의 눈물'을 만든 김진만 PD, 국내 외상외과 분야의 개척자인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의 강연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각 연사별로 부대를 매칭해 해당 군 장병들의 '고민상담코너', 편지 전달 이벤트인 '사연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등 사전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 온라인으로 연사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명사가 전하는 힘찬 응원과 격려

첫 번째 연사인 이상화 선수는 오랜 국가대표 생활을 통해 얻은 '승리하는 마인드에 대하여'라는 내용으로 재능과 능력 관련한 성장 스토리를 MC와의 대화 토크로 선보였다. 두 번째 연사인 김진만 PD는 '지속가능 환경, 그 미래에 대하여'라는 내용으로 코로나로 변화하는 자연과 사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 위한 사명 등을 전했다. 마지막 연사인 이국종 교수는 '끝의 시작, 위기의 기회에 대하여'라는 내용으로 책임을 가진 소통,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에 대해 강연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청년 세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강연과 토크쇼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군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군인의 품격'은 군 장병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기계발 기회를 주기 위한 문화소통 사회공헌활동으로 2012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128개 부대 8만여 군 장병들이 관람했다. **MM**

뜨거운 희망 ON도

현대차그룹 '2020 군인의 품격 온(ON)택트 소통 콘서트'

2020 군인의 품격

who
군 장병, 청년 및 일반인

what
前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상화 선수, <아마존의 눈물> 김진만 PD, 아주대 의료원 외상 연구소장 이국종 교수의 온라인 강연 진행

- 01 연사로 참여한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의 강연 모습
- 02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스피드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상화 선수(우)와 사회를 맡은 방송인 안현모(좌)



글: 전윤초(문화사업팀 과장)

2020 A&B포럼 '스페이스 K 서울' 문화탐방 진행

한국메세나협회는 지난 11월 26일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실무책임자들의 네트워크 모임인 A&B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A&B포럼은 최근 개관한 '스페이스 K 서울'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스페이스 K 서울'은 강서구 마곡지구의 바이오 지식산업 클러스터 중심에 새로운 예술허브로 주목을 받으며 지난 9월에 개관했다. 코오롱그룹이 105억 원을 들여 신축한 미술관이며 기업의 예술공헌 활동을 넘어 서남권 주민들의 문화예술 수요를 직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초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공공 공간이다. 연면적 2천44㎡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문화예술 콘텐츠 지원, 지역민의 문화 향유 확대 등의 역할을 하게 될 이 공간의 건축 및 설계는 2015년 제 14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조민석 소장이 맡았다. 고밀도의 도심 속에서 녹지 및 휴식 공간과 더불어 문화를 매개로 한 공공장소로서의 미술관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철학이 담겨있었다. '스페이스 K 서울'은 앞으로 다양한 기술을 융합한 현대미술의 경향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A&B포럼은 개관전인 '일그러진 초상'展 관람으로 시작되었다. 인간의 형상 탐구를 테마로 서도호, 글렌 브라운 등 현대미술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 30여 점을 수석 큐레이터의 설명과 함께 관람할 수 있었다.

또한, 야외 공원에는 증강현실로 구현된 한경우 작가의 작품 <Unimaginable colums>이 설치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해보는 색다른 전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MM**

01-02-03 '스페이스 K 서울'에서 진행된 A&B포럼 현장



01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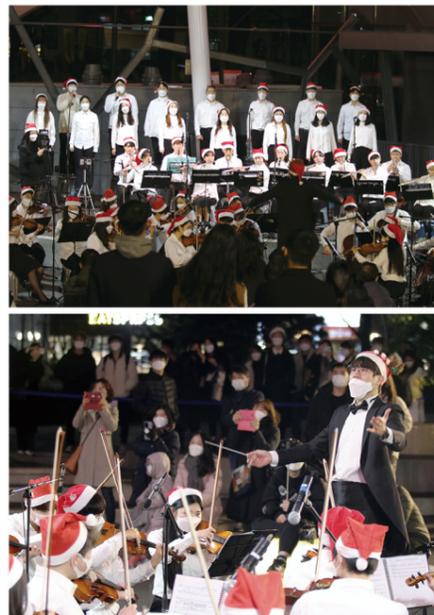
함께하는 메세나
회원사 뉴스

한화그룹
한화클래식 2020 개최

올 한 해 전 세계 수많은 공연들이 무대에 오르지 못하며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 해마다 큰 사랑을 받아온 '한화그룹이 함께 하는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도 4월 공연이 7월로 연기돼 진행됐다. 올해 8회째를 맞은 한화클래식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안정적으로 공연을 마친 경험을 토대로 임선혜, 김나연, 권민석, 김기훈 등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과 함께 서울에서만 2회 공연(12월 12일, 16일)을 추진하게 됐다. 방역지침에 발맞춰 무관중 공연으로 진행됐다. 대신 네이버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아쉬운 마음을 달랬다. 올해 한화클래식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임선혜와 한화 바로크 프로젝트 무대로 꾸러졌다. 한화 바로크 프로젝트는 이번 공연을 위해 특별히 결성된 바로크 앙상블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국내 바로크 연주자들로 구성돼 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결혼칸타타'와 페르골레시의 '마님이 된 하녀'를 비롯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라이브 무대를 현장에서 감상할 수 없었지만 영상을 통해 연주자들의 생생한 표정과 악기, 특히 오페라 무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관객에서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다.

동아제약
문화예술봉사단메리와 문화예술공연 '메리투게더' 개최

동아제약과 결연을 맺고 있는 문화예술봉사단메리는 지난 11월 22일, 시민을 대상으로 해화동 마로니에 야외공연장에서 코로나19 극복 희망 메시지 전달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메리투게더'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자 마련된 '메리투게더'는 일상 공간을 문화예술을 즐기는 공연장으로 탈바꿈시키고 지역사회 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한 문화예술봉사단메리의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콘텐츠다. 음악을 사랑하는 청소년과 청년대학생의 봉사활동 형태로 펼쳐지는 공연은 '메리오케스트라 서울경기 및 강원지부'와 '메리콰이어'가 함께했다. 'Nella Fantasia', 'We are the Champions', '걱정말아요 그대' 등 친숙한 대중가요와 뮤지컬 '캣츠'의 수록곡 'Memory', 'Les Miserables Medley' 등 영화 OST 명곡이 연주됐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시민들이 직접 연주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
'2021 TOYOTA DREAM CAR ART CONTEST' 개최

한국토요타자동차는 '2021 토요타 드림카 아트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토요타 드림카 아트 콘테스트는 전 세계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꿈의 자동차(YOUR DREAM CAR)'를 상상하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콘테스트로, 2004년부터 일본 토요타 본사에서 시작하여 약 620만 명의 어린이가 참여한 세계적인 규모의 미술대회다. 한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우편을 통해 접수 받는다. 만 8세 미만, 만 8세~만 11세, 만 12세~만 15세의 세 가지로 참가 연령을 나누어 심사하며, 국내 콘테스트 본선 수상작 9작품(연령대별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작품)은 글로벌 본선에 자동 진출한다. 수상자 본인의 명의로 수상자 배출 학교 또는 기관에 도서도 기증될 예정이다. 월드 콘테스트 수상자 총 다섯 명에게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5,000달러와 수상자 학교에 10,000달러의 상금이 수여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 홈페이지(www.toyota.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벽산문화재단
제10회 벽산문화상 시상식 개최

제10회 벽산문화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13일 구로구 태평양물산 본사 갤러리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벽산문화상 시상식은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매년 미술, 음악, 희곡 및 연극분야에서 다양한 문화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는 벽산문화재단이 그 해의 최고의 연극인들과 음악인들을 선정하고 시상하는 자리다. 제10회 벽산희곡상 공모전 당선작은 김지선 신예작가의 <호모 플라스틱 쿠스>가 만장일치로 선정됐다. 상금 1천만 원과 함께 연극 제작 시 3천만 원 이상이 지원 되고, 벽산엔지니어링의 추가후원이 있을 예정이다. 제3회 벽산음악상의 수상단체는 국내를 대표하는 현악 4중주단 노부스콰르텟에 영광이 돌아갔으며 상금 2천만 원이 수여됐다. 제7회 윤영선연극상 수상자는 동이향 극작가가 선정됐다. 연극계에 신선한 화두로 자리매김한 벽산희곡상, 음악계의 관심을 모으며 자리를 잡아가는 음악상 그리고 순수 연극인들의 가슴 뜨거운 잔치인 윤영선연극상의 수상자를 뽑아 시상하는 것으로 모든 보람을 함축하는 자리였다.



회원사 소개

(가나다순)

회장사

일신방직

부회장사

교보생명보험
노루홀딩스
동성코퍼레이션
벽산엔지니어링
삼성미술관(삼성문화재단)
삼양홀딩스
설원랑문화재단
세아제강
유니드
종근당
코오롱그룹
크라온-해태제과
파라다이스문화재단
풍산그룹
한미약품
한화갤러리아
현대해상화재보험
효성

이사사

고려당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두산
디자인하우스
사라
신세계
이건홀딩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성자동차
LG연암문화재단
SK SUPEX추구협의회 Social Value위원회

회원사

가나아트갤러리
강원랜드
경남스틸
공간그룹
광주요
금융투자협회
금호건설
금호고속
금호고속 유스케어
금호미쓰이화학
금호석유화학
금호타이어
금호폴리캠
금호피앤비화학
기아자동차주식회사
나라삼양갑속기
나라통상
나우피플
남아섬교육문화그룹
네이버문화재단

네이처스웨밀리코리아
노루비케미칼
노루오토코팅
노루페인트
녹십자
뉴서울 컨트리클럽
뉴스킨 코리아
뉴욕제과
다진
대림산업
대성산업가스
대신증권
대우건설
대창스틸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제분
대한항공
더페이스샵코리아
돌실나이
동서식품
동아제약
동아출판
동일FnG
두산건설
두산연강재단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로얄&컴퍼니
롯데렌터카
롯데문화재단
롯데백화점
마케팅규레이터 그룹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모나미
문화유산국민신탁
미디어월
법률사무소 C&B
베이글카페
보령제약
본아이에프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브레드가든
빌모트 건축사무소 한국지사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서울병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양인터내셔널
삼익문화재단
삼일회계법인
삼화에프앤에프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예술기획
서울옥션
성도GL
세원특수금속
세일ENS
세화예술문화재단
소니코리아
송원문화재단
스파크인터내셔널
신라교역
신성씨에스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신한카드
아시아나HDT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항공
아이피케이
에스원
영앤익심 주식회사
오리콤
오비맥주 주식회사
오성정보통신
올림푸스한국
우진
우진건설
원마온트
월드리츠개발주식회사
원포시스
유안타증권
유중아트센터
이건산업
이수화학
인산죽염 주식회사
인터파크 큐브릿지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일진문화재단
재단법인 송강재단
제우인베스트먼트
제일기획
조선호텔
종이문화재단
지알이파트너스자산운용주식회사
지앤히어링코리아
청림출판
컨슈머타임스
케이옥션
코리아 투모로우
코스모스악기
코카콜라음료
크레디아프로젝트
클라우드나인마케팅
태영건설
템퍼코리아 유한회사
퍼시스
페르페티 반 멜 아시아퍼시픽
포스코ICT
필룩스
한국FPSB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공항공사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무역협회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암웨이
한국전력공사
한국도요타자동차
한맥도시개발
한미회계법인
한빛문화재단
한세실업
한진
한화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솔루션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예술관
현대차 정몽구 재단
호텔롯데
호텔롯데 면세점
호텔신라
홈플러스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휠라코리아
휴맥스
BMW코리아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CI문화재단
디동일
GA KOREA smart city & resort
GS칼텍스 예울마루
HK
HSD엔진
IBK기업은행
KBS교향악단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KT
KT&G
LG생활건강
LG전자
LG화학
LH
OCI
POSCO
SK건설
SK네트웍스
SK증권
SK텔레콤
SK해운
SM삼한기업
TCC스틸

회비 지원

감사드립니다
(2020.9.17.~2020.12.10.)



New Member

한국도요타자동차

2000년에 설립된 한국도요타자동차는 자동차 판매, 서비스 뿐 아니라 한국의 좋은 시민기업으로서 환경과 교통안전, 문화와 교육, 스포츠의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한국도요타자동차는 '누구나 제한 없이 이동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자동차 회사를 뛰어넘어 사람들의 다양한 이동을 돕는 '모빌리티 컴퍼니'로 거듭나고 있다.

오늘부터 언제나 함께, 메트라이프

행복한 내일은 결국,
행복한 오늘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을 알기에

‘오늘부터’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메트라이프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메트라이프

